

202206 소망문집4월

소망 이마 나눔 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 북한

기도회

한반도 통일기도회

6.17(금) 오후 7:30

선교관 2층 제1예배실

전시

‘이웃이 되어 가는 북한’

6.17(금)~ 6.24(금)

본당 옆 주차장

예배

5부 예배와 함께하는 미소비전예배

6.19(주일)

남.북찬양팀 / 미소비전 특송

찬양

교회학교와 함께하는 통일찬양

6.19(주일)

교회학교 통일찬양



contents

June 2022

하늘을 여는 기도	주를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2
깊어지는 영성	무엇이든 구하기 전에 김경진	4
묵상에 붙임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티시 해리스 워런	6

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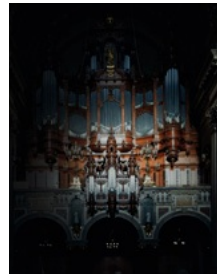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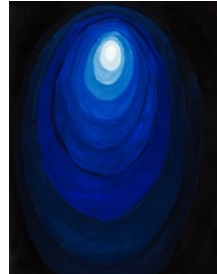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10
말씀 개관		12
6월 본문	데살로니가후서·잠언·스바냐·하박국·야고보서 1주(6/6) 2주(6/13) 3주(6/20) 4주(6/27)	16

FAITH

땅끝에서 온 편지	씨앗 속에 담긴 생명 박OO·오OO	36
소망사랑방	아들람 공동체로부터 정미경·황지영	64
책갈피 인문학	복수가 휩쓸고 남긴 허망함 유지미	100
공간공감	대구 블레이주택 홍성찬	138
신앙체크리스트		162
이달의 기도		163

COMMUNICATION

문화읽기	죽음을 이기는 사랑 김지혜	164
길벗글벗	아버지를 부를 때 김명식	168
예배자의 길	현화 이야기 6 최창실·김경은	172
마음풍경	오소서 성령님 김난희	174
음악산책	플레노 음색에 담긴 하나님의 세계 문지영	178
통일선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 북한 이홍락	182
돌봄의 창	약과 건강 강찬구	186
소망뉴스		190



주를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행위나 생각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어지는 영성

무엇이든 구하기 전에

글 김경진



흥미로우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복음 두 곳에 소개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나흘 전이고, 흐름상으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베다니로 가셨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올라오시던 때입니다. 그때에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는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마 21:19 중)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은 때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막 11:12-13) 사십 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은 시장기 하나 참지 못하셨는지 의문이 드는가 하면, 때가 아닌 나무에게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저주하셔야만 했는지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시면서 ‘믿음’과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마 21:20-22). 믿음을 가지고 섰더라도 하더라도 때가 이르지 않은 나무에게 저주가 응해야만 했을까요? 그럼에도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요 참입니다.

그 능력을 보이신 주님께서 다시금 입술을 열어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막 11:24)

이러한 흐름을 따라 살펴볼 한 가지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어쩌면 당시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난동을 부리시는 것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전을 바르게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성전의 제 기능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기능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마 21:13 중)

우리는 여기서 성전 정화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에 등장하는 동일한 표현을 발견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공생애 마지막 시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 주길 원하셨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전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쫓으시는 상징적인 행위를 보이셨고 무화과나무가 마르는 표적을 행하시며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과 연결해 볼 때, 궁극적으로는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요 2:19-21, 15:7).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서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무한한 자유를 주시는 듯하고 모든 욕망을 채워 주시겠다는 약속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도리어 요한복음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명하신 이후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요 15:16-17). 동일한 흐름이 나타나는 마가복음은 용서하는 능력을 구하라고 하죠(막 11:24-25).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은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눅 11:13).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움트고 용서가 가득한 땅에 거할 때라야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임합니다. 이것 없는 재산, 지위, 성공은 의미 없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따라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케 하시는 성령님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들을 예비하시며 부어 주실 것입니다.

Meditation 묵상에 붙임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글 티시 해리스 워런

빛으로 가는 길은 어둠을 정면으로 통과해야 한다.

하나님이 미쁘신 이유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같지 않다. 최선과 최악을 모두 아우르면 우리의 사랑은 밤과 낮에 더 가깝다. 왔다가 가고, 솟았다가 가라앉는다. 때로 우리는 순수하고 고귀하게 사랑하며, 그 사랑은 영광스럽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희미해지고 불안정해진다. 해는 진다.

하나님의 사랑은 밤낮이 아닌 빛의 속도처럼 일정하다. 그분의 사랑은 만물의 중심이고, 그 안에는 어둠이 없다. 질병, 피곤함, 죽음, 고난, 고통,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과 영원의 고정된 중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번영을 가져오기를 원하시지만, 이는 십자가를 배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굴절되기 때문에 종종 그 사랑을 보거나 인식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신뢰하기를 배우고자 한다면, 즉 우리 삶의 무게를 하나님의 사랑 위에 올려놓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 즉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신뢰하게 된다. 해고, 결별, 질병, 외로움, 죄와의 긴 싸움, 친구와의 소원해진 관계, 실망,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우리 자신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나는 좀더 쉬운 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호화로운과 무수한 편안함으로 잘 닦인 길이 있기를 바라지만, ‘페르 크루켄 아드 루켄.’ 빛으로 가는 길은 어둠을 정면으로 통과해야 한다. 혹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주 어두운 이곳에서 우리를 향해 쏟아져 오고 있는 빛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실재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를 언제나 느낀다는 의미는 분명 아니다. 고통의 계절에는 종종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나님의 사랑은 슬픔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어쨌든 아직은 그렇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이만 측정할 수 없고, 부드럽지만 길들일 수 없다. 우리의 의견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를 뒤흔들면서도 자유롭게 한다. 우리를 죽이고, 또한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 준다. 위안을 주는 만큼 번민을 준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우리를 온전하고 역동적으로 살아 있게 만들겠다고 고집한다. 그 과정은 길고 고통스럽다. **하나님의 맹렬하고 무한한 사랑은 우리의 모든 취약함에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지만, 때로 그 하루를 지나는 것은 여전히 지옥처럼 아플 것이다.**

취약함에서 우리를 구해 주는 대신, 하나님은 종종 그 안으로 더 깊이 우리를 부르신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도 깊이 사랑받고 있음을 믿는 것은, 우리가 실망과 아픔에 직면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 버려지거나 무시당하기 때문이 아님을 아는 것이다. 결국 ‘페르 크루켄 아드루켄’, 빛으로의 이 여행은 우리 자신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충만함을 본다. 바로 여기에, 내가 믿기 위해 천천히 팔을 뻗고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드리운 면이 없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 뒤에는 감춰진 속임수나 어둠이 없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끝없이, 수그러들 줄 모르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강력하게.

기도의 절정이자 우리 자신의 삶을 포함한 모든 역사의 절정은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 발언권을 갖는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질문하도록 허락하신다. “당신은 어떤 분이시죠? 저를 사랑하세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 주님께 물을 수 있을 때까지 말이다.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소망말씀나눔 본문에 따른 새벽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아이폰 : App Store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안드로이드폰 : T Store 혹은 Google Play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문의 : 교회사무실 02-512-9191 (내선 141~145)

말씀 속으로

1 데살로니가후서 1:1-7:1

수요일 2024년 3월 27일 주일 141~145

말씀 속으로

1 바울과 실바스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영광을 찬양하노니
Paul, Silas and Timothy, To the church of the Thessalonians in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2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복과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자기 서로 사랑함이라
We ought always to thank God for you, brothers, and rightly so, because your faith is growing more and more, and the love every one of you has for each other is increasing.

4 그리스도 너희가 믿고 있는 모든 박해를 끝난 후에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전히 자랑하노라
Therefore, among God's churches we boast about your perseverance and faith in all the persecutions and trials you are enduring.

1단계 : 준비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단계

말씀 앞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묵상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마음을 흔들어놓거나 묵상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여겨지거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2단계 : 이해

말씀을 읽고 귀로 듣는 단계

말씀을 두 번 정도 천천히 읽으십시오. 나직하게 소리 내어 읽으면 더 좋습니다. 입으로 읽으면 귀로 들리고, 귀로 들으면 그 뜻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처음 읽을 때에는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본문을 읽으십시오.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목상집에 있는 《이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적용

말씀에 머물며 나를 살피는 단계

다시 한 번 읽으며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나 새로 깨달은 말씀을 밑줄을 긋고, 그 말씀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면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물며 나를 성찰하고 내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 뿐 아니라 질책까지도 귀 기울이십시오. (목상을 위한 질문인 《적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새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더욱 깊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메시지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한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4단계 : 기도

내 삶 속에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단계

하나님께 응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살피며 말씀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1.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도들에게 두 편을 편지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데살로니가 교도들을 광범하게 위로하고 권면한 편지 두 편을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에 있는 제롬에게 보내셨다고 믿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도들은 헬라 제국 속의 여러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들을 통해 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들을 통해 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들을 통해 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2.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도에게 바울의 이름을 가리켜서 썼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도들에게 바울의 이름을 가리켜서 썼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들을 통해 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들을 통해 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들을 통해 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의미를 찾아서 적용하십시오.

1.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도들에게 바울의 이름을 가리켜서 썼습니까? 바울은 이 편지들을 통해 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들을 통해 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2.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도들에게 바울의 이름을 가리켜서 썼습니까? 바울은 이 편지들을 통해 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들을 통해 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기도 | 우리 마음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1.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도들에게 바울의 이름을 가리켜서 썼습니까? 바울은 이 편지들을 통해 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들을 통해 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2.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도들에게 바울의 이름을 가리켜서 썼습니까? 바울은 이 편지들을 통해 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들을 통해 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목상집기 | 말씀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의미를 찾고, 이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찾아보십시오.

반복묵상 | 말씀에서 발견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마음을 세우는 기도하십시오.

6월의 본문

스바냐 · 하박국

스바냐와 하박국이 감내해야 했던 유다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이 이방 신을 섬기며 땅의 풍요를 기원했는가 하면, 세상이 작동하는 논리에 따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고 억압하는 불의가 버젓이 일어났다. 스바냐서와 하박국서는 이 현실을 매우 날카롭게 지적하며 마지막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임할 여호와와의 분노를 예고한다(습 1:3, 합 1:4).

어둠이 자욱한 땅을 바라보는 일만도 마음이 시린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마저 두렵고 떨리니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어도 속수무책일 뿐이다. 하박국은 자신을 짓누르는 무기력한 심정을 토해 내기라도 하려는 듯 불만을 거둬 표하며 하나님과 맞서려고 한다.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침착하셨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뼈아픈 배신을 홀로 감당하시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고 계셨다. 이것이 두 선지자에게 ‘여호와와의 큰 날’을 미리 선포해 주신 이유이다. 게다가 하나님이 품으신 비전은 보다 원대했다. 비단 자녀의 회복은 물론이고 스스로 행하실 공의로운 심판을 통하여 열방을 바로잡으시고 새롭게 하실 꿈을 꾸고 계셨다. 이 꿈이 이리저리 흩어진 민족들을 하나로 연합하고 열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적을 현실로 풀어낸다. 악에서 선이 일어나는 놀라운 순간들이다.

웅대하고 장황한 이 날을 앞서 보게 하신 하나님과, 환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스바냐와 하박국. 두 선지자의 입술에서 찬양이 울리기까지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부동켜안으며 씨름했던 그들의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었드렸던 그 자리로부터 구스인의 부부에게서 스바냐가 출생했고 성루에 선 하박국에게 천상의 기쁨이 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동일한 자리에서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자녀들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신다.

데살로니가후서 · 야고보서

스바냐와 하박국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그분을 ‘주’로서 모시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싼 환경은 스바냐와 하박국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제국의 힘은 여전히 막강했고, 막대한 힘으로부터 온갖 종교와 문화가 넘쳐난다. 시야를 사로잡는 도

시의 풍경에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히 멀어지고 거짓 소문과 세상의 풍요가 마음을 뒤흔든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가 편지를 쓴다. 데살로니가 성도를 포함하여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기를 바라며. 이 소망에는 혹독한 연단이 따르고 인내가 요구되기 마련이지만 만세 전에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이 이 일을 또한 완성하고 계신다. 여기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자녀들의 앞날을 비추신다. 바울과 야고보는 이 빛을 따라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껏 격려한다. 이 편지가 그들의 사랑을 실어 간다.

한눈에 보는 이달의 본문

1~4일 주간		
1(수)	데살로니가후서 1:1~7上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
2(목)	1:7下~12	구원의 역사를 이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3(금)	2:1~12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의 세력
4(토)	잠언 29:15~27	여호와를 주인 삼는 삶
6~11일 주간		
6(월)	잠언 30:1~9	아굴의 교훈 1
7(화)	데살로니가후서 2:13~17	거짓 소문에 휘둘리지 않기를 권면
8(수)	3:1~5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
9(목)	3:6~13	사랑을 나눠 주는 삶을 권면
10(금)	3:14~18	선을 행하는 일을 격려하는 바울
11(토)	잠언 30:10~17	아굴의 교훈 2
12~18일 주간		
13(월)	잠언 30:18~23	아굴의 교훈 3
14(화)	스바냐 1:1~18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고
15(수)	2:1~15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
16(목)	3:1~8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예고
17(금)	3:9~20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 계획
18(토)	잠언 30:24~33	겸손하게 배우는 삶의 자세
20~25일 주간		
20(월)	잠언 31:1~9	솔로몬을 향한 어머니의 충고
21(화)	하박국 1:1~11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항변
22(수)	1:12~2:4	성루에 선 하박국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23(목)	2:5~20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예고
24(금)	3:1~19	하박국의 기도와 노래
25(토)	잠언 31:10~31	현숙한 여인 상
27~30일 주간		
27(월)	야고보서 1:1~11	두 마음을 경고하는 야고보
28(화)	1:12~18	인내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
29(수)	1:19~27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권면
30(목)	2:1~13	이웃을 차별하지 않는 삶을 권면

6

June 2022

SUN

MON

TUE

5 성령강림주일

6 현충일

7

12

13

14

화요조찬 성경공부
성인성서 화요반 종강

19

20

21

26

27

28

WED	THU	FRI	SAT
1 2022 지방선거	2	3	4
8	9	10 여전도회 연합예배	11
15 권사회 월례회	16 성인성서 목요반 종강	17	18
22	23	24 6:25 나라사랑 기도회	25
29	30	7 S M T W T F S Jul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31 25 26 27 28 29 30	

1

수요일

데살로니가후서 1:1~7上

오늘의 찬송 315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말씀 속으로

-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Paul, Silas and Timothy, To the church of the Thessalonians in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 2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 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We ought always to thank God for you, brothers, and rightly so, because your faith is growing more and more, and the love every one of you has for each other is increasing.

- 4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Therefore, among God's churches we boast about your perseverance and faith in all the persecutions and trials you are enduring.

-
- 5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All this is evidence that God's judgment is right, and as a result you will be counted worthy of the kingdom of God, for which you are suffering.

- 6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God is just: He will pay back trouble to those who trouble you

- 7^上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and give relief to you who are troubled, and to us as well.

1:4 우리가 친히 자랑
하노라

바울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이뤄 가는 데살로니가 교인을 보면서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에게 자랑했다(살전 1:8).

1:6 갚으시고

주의 날과 관련하여 구약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다. 바울은 이 표현을 하나님의 공의로 우신 심판과 연결하여 사용한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를 작성합니다(1~4).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전서를 작성하며 안부와 권면을 전한 바울이 오래지 않아 두 번째 편지를 써 내려간 걸로 짐작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썼을 당시 교회를 둘러싼 문제들이 지속되던 상황을 염두에 둔 모양입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전서 때와 거의 유사한 인사말로 성도들에게 안부를 건네며, 여러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을 사로잡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1절). 그리고는 그들과 동일한 주인을 섬기며 같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형제자매의 믿음이야말로 ‘항상’ 감사요 기쁨이 된다고 고백합니다(3절).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인내의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교회의 소식이 그의 믿음을 고취시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4절).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을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2.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의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5~7上).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밝힙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질책과 무시, 핍박을 당하는 현실 자체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의 성도를 향해 바울은 과감하게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바로잡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듭니다(6절). ‘주의 날’이라 부르는 그날에 환난받는 주의 자녀들은 참된 안식을 얻지만, 환난을 주는 자들은 도리어 환난당하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낌없는 긍휼로 맞아 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공의로우십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은 서로의 기쁨이자 위로가 되도록 자녀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는 어떻게 서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2.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가 보여 주는 현실이 곧 그들이 믿는 세계라고 고백합니다. 나와 가정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거울로서 서 있는지 돌아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8:11~14 ¹¹ 주님,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 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¹² 너희는 시온 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 보아라. ¹³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 주어라. ¹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
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묵상일기 | 말씀에서 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2

목요일

데살로니가후서 1:7下~12

오늘의 찬송 445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말씀 속으로

7下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This will happen when the Lord Jesus is revealed from heaven in blazing fire with his powerful angels,

8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He will punish those who do not know God and do not obey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9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They will be punished with everlasting destruction and shu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from the majesty of his power

10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on the day he comes to be glorified in his holy people and to be marveled at among all those who have believed. This includes you, because you believed our testimony to you,

-
- 11 이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
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
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With this in mind, we constantly pray for you, that our God
may count you worthy of his calling, and that by his power he
may fulfill every good purpose of yours and every act prompted
by your faith,

- 12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
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We pray this so that the name of our Lord Jesus may be
glorified in you, and you in him, according to the grace of our
God and the Lord Jesus Christ,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바울이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주 예수를 고대케 합니다(7下~9).

7上절까지 바울은 믿음의 역사를 수고로이 감당하며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인을 격려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날’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형벌이 내려집니다(8절).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는 이 일이 성취되는 날의 시작을 주 예수의 나타나심 곧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사건으로부터 전개합니다(7下). 한편, 학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형벌을 전함으로써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역설한다고 주장합니다.

2.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10~12).

그날에 형벌받을 대상이 8절에서 밝혀졌다면, 10절은 영광을 얻으실 분을 소개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10절)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유 가운데 높임받으실 하나님을 선포한 셈입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한 날이지만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 역시 높여 주시며 기쁨의 잔치에 참여케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11절). 영광스런 이 날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자녀들을 서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이 고난 중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으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지금, 이 땅에서 부르심에 합당히 살아가도록 이끍니다. 성도 자신의 믿음과 삶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까닭입니다(12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봅시다.

1. 바울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2.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를 기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잠잠히 머무르며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묵상합니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8:4~8 ⁴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⁵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⁶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⁷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속곳 골짜기를 측량하련다. ⁸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묵상일기 | 말씀에서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 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3

금요일

데살로니가후서 2:1~12

오늘의 찬송 433 귀하신 주여 날 불드사

말씀 속으로

-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Concerning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our being gathered to him, we ask you, brothers,

- 2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not to become easily unsettled or alarmed by some prophecy, report or letter supposed to have come from us, saying that the day of the Lord has already come.

- 3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Don't let anyone deceive you in any way, for (that day will not come) until the rebellion occurs and the man of lawlessness is revealed, the man doomed to destruction.

-
- 4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He will oppose and will exalt himself over everything that is called God or is worshiped, so that he sets himself up in God's temple, proclaiming himself to be God.

- 5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Don't you remember that when I was with you I used to tell you these things?

- 6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And now you know what is holding him back, so that he may be revealed at the proper time.

- 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For the secret power of lawlessness is already at work; but the one who now holds it back will continue to do so till he is taken out of the way.

- 8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And then the lawless one will be revealed, whom the Lord Jesus will overthrow with the breath of his mouth and destroy by the splendor of his coming.

- 9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The coming of the lawless one will be in accordance with the work of Satan displayed in all kinds of counterfeit miracles, signs and wonders,

- 10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and in every sort of evil that deceives those who are perishing. They perish because they refused to love the truth and so be saved,

- 11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For this reason God sends them a powerful delusion so that they will believe the lie

12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and so that all will be condemned who have not believed the truth but have delighted in wickednes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바울이 거짓 소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를 격려합니다(1~8).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 쓴 또 다른 이유가 기록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1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성도들을 둘러싸고 ‘주의 날’에 관한 거짓 소문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 혹은 ‘말’로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바울의 이름을 도용한 편지로 그날이 도래했다는 거짓 소문이 일어난 것입니다(2절). 여기에 바울의 입장은 매우 단호합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3절) 그리고는 주의 심판이 도래하기 이전에 나타날 몇 가지 징조를 소개하는데, 배교 곧 믿음을 배신하는 일과 불법자가 성행하는 현상이 거론됩니다(3절). 불법자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속이며 우상 숭배를 범하도록 유혹하지만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그를 죽으시고 온 천하에 주권을 드러내실 계획이십니다(4~8절).

2. 진리의 사랑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십시오!(9~12)

불법을 일으키는 세력의 최종 결말이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존재는 하나 잠시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불법자가 성행할 때에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합니다(9절). 그리고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전부 속이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성도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불의로부터 깨어 자신을 지키기를 강조합니다(10절). 그러나 성도들이 두려워하지만은 않은 이유는 힘이 세고 능력 있어 보이는 악한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해 있기 때문입니다(11절). 하나님은 그들이 한때 세력을 펼치도록 허락하실 뿐,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며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실 미래를 준비하십니다(12절). 이것이 바울이 말한 ‘진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영위하는 기쁨만이 따를 뿐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바울은 속이는 자는 물론이고 속임에 넘어가는 행위를 주의시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믿음과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2. 참 사랑은 그 자체로서 구원의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0:7~13 ⁷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⁸ 주님,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 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셀라) ⁹ 나를 에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갚아 주십시오. ¹⁰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¹¹ 혀를 놀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폭력을 놀이 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¹²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¹³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묵상일기 | 말씀에서와달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 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4

잠언 29:15~27

토요일

오늘의 찬송 94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말씀 속으로

- 15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The rod of correction imparts wisdom, but a child left to himself disgraces his mother.

- 16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When the wicked thrive, so does sin, but the righteous will see their downfall.

- 17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Discipline your son, and he will give you peace; he will bring delight to your soul.

- 18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but blessed is he who keeps the law.

19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A servant cannot be corrected by mere words; though he understands, he will not respond.

20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Do you see a man who speaks in haste? There is more hope for a fool than for him.

21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하리라

If a man pampers his servant from youth, he will bring grief in the end.

22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리라

An angry man stirs up dissension, and a hot-tempered one commits many sins.

23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A man's pride brings him low, but a man of lowly spirit gains honor.

- 24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The accomplice of a thief is his own enemy; he is put under oath and dare not testify.

- 25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Fear of man will prove to be a snare, but whoever trusts in the LORD is kept safe.

- 26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Many seek an audience with a ruler, but it is from the LORD that man gets justice.

- 27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The righteous detest the dishonest; the wicked detest the upright.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율법이 제시하는 길은 교육되어야 합니다(15~18).

지혜로운 왕이 묘사된 흐름에 이어(29:1~14), 본 단락에서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18절) 솔로몬은 율법 없이 방자하게 구는 인간의 현실을 보란 듯이 콕 집어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율법이 담고 있는 세상을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성을 선포합니다(15절). 부모의 채찍과 꾸지람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식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이자 평안을 안겨 줍니다(17절). 반면에 말씀을 부정하며 제 멋대로 행동하는 자는 ‘악인’이라 칭함받습니다(16절). 이렇듯 솔로몬은 서로 다른 인생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필요성과 함께,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일깨워 줍니다(16절).

2.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위에 두어야 합니다(19~27).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를 부요케 한다면,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조명됩니다.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19절) 솔로몬은 간혹 미련하여 신분을 생각지 못하고 주인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종에 이어 주인의 자녀로까지 착각하며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종을 고발합니다(21절).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는 인간의 자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기를 당부한 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25절)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질서의 시초가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높이며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와 미움을 면치 못합니다(27절). 그러므로 참 평화와 행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26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에서 사람은 말을 절제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세워 가고 있습니까?
2.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풍요롭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을 구합니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9:7~11 ⁷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⁸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 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 준다. ⁹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¹⁰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¹¹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묵상일기 | 말씀에서 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 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씨앗 속에 담긴 생명

글 박00 · 오00 (터키 선교사)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앗이 심겨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씨앗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 한 무슬림 대학생과 복음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며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자신의 도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자신은 신실한 무슬림이라며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들이 떠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때 나에게 해 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군요! 당신들이 말한 성경을 얻을 수 있을까요?” 씨앗 속에 담겨진 생명이 그 마음속에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때문에 우리 손에 있는 생명의 씨앗을 저들의 마음속에 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수없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나 민족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얼마 이 정도도 들어보지 못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깨닫는 것은 저들이 평생에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들려주어야 합니다. 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듣기만 한다면 살 수 있는데, 듣지 못해서 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척박한 땅, 언제 썩을 틈을지 모르는 땅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은 참으로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백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소수



입니다.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때로는 낙심도 되지만, 복음을 듣고 생명 얻을 사람을 생각한다면 멈출 수 없습니다. 다시 울더라도 뿌려야 합니다. 오늘도 씨앗을 손에 들고 마음속에 그려 봅니다. 언젠가 이 씨앗이 무성한 나무가 되어 갖가지 새들이 소리 내어 지저귀는 날이 올 것을!

기도 제목

- 왕의 대로(터키, 요르단, 시리아, 이스라엘) 상에 거주하는 1억 2천명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 온라인과 오프라인 순회 사역을 통하여 터키 81개 도시에 전도와 제자화,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도록
- 보안과 안전 문제로부터 지켜 주시고 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6/5~11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시 34:9)

5 (주일)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6 (월)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7 (화)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8 (수)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9 (목)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10 (금)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11 (토)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유월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6

잠언 30:1~9

월요일
현충일

오늘의 찬송 321 날 대속하신 예수께

말씀 속으로

- 1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The sayings of Agur son of Jakeh - an oracle : This man declared to Ithiel, to Ithiel and to Ucal:

- 2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I am the most ignorant of men; I do not have a man's understanding.

- 3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I have not learned wisdom, nor have I knowledge of the Holy One.

- 4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Who has gone up to heaven and come down? Who has gathered up the wind in the hollow of his hands? Who has wrapped up the waters in his cloak? Who has established all the ends of the earth? What is his name, and the name of his son? Tell me if you know!

5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Every word of God is flawless; he is a shield to those who take refuge in him.

6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Do not add to his words, or he will rebuke you and prove you a liar.”

7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Two things I ask of you, O LORD; do not refuse me before I die:

8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Keep falsehood and lies far from me; give me neither poverty nor riches, but give me only my daily bread.

9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Otherwise, I may have too much and disown you and say, “Who is the LORD?” Or I may become poor and steal, and so dishonor the name of my God.

30:1 잠언
경고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여호와와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마음이 필요합니다(1~6).

성경 전체를 통틀어 ‘아굴’이라는 자가 잠언 30장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1절에 의하면 그가 아들 혹은 제자로 짐작되는 사람에게 교훈을 제시한 듯한데, 2~3절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은 깨달음을 덩덤하게 전합니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서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인생을 살아보니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하며 어리석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으셨다면 깨닫지 못했을 사실인 마냥 아굴은 지존자요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드높이며 영광을 찬양합니다(4절). 말씀으로서 스스로를 계시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깨닫지 못할 인간의 현실을 암시한 셈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자 아굴은 임의로 여호와와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 없이 있는 그대로 순결하게 받아들여하기를 요청합니다(5~6절).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대로 대하며 행동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죄인 까닭입니다.

2.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7~9).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견줄 인생이 없음을 깨달은 아굴이 삶을 품으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에는 인생을 통틀어 얻은 교훈이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8절) 말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 거짓과 위선의 모양을 벗겨 달라는 간청에는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려는 악을 근절시켜 달라는 부탁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고백이 따릅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8절) 먼저는 말씀을 온전히 대하는 삶을 위하여 거짓을 멀리 해 달라고 기도했다면, 이번에는 말씀을 우선 삼는 삶을 두고 기도합니다. 의식주 문제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아굴의 열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하나님 또한 그를 높이시며 후대에 이르기까지 칭송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봅시다.

1.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순결한 마음을 가르칩니다. 나의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기보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뜻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2. 아굴은 양식과 재산의 문제보다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 쉬고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소망 중에 바라고 있습니까?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6 ¹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²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³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⁴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날 바람에 흩날리는 쪽정이와 같다. ⁵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⁶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묵상일기 | 말씀에서 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 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말씀 속으로

- 13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But we ought always to thank God for you, brothers loved by the Lord, because from the beginning God chose you to be saved through the sanctifying work of the Spirit and through belief in the truth,

- 14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He called you to this through our gospel, that you might share in the glory of our Lord Jesus Christ,

- 15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So then, brothers, stand firm and hold to the teachings we passed on to you, whether by word of mouth or by letter.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May our Lord Jesus Christ himself and God our Father, who
loved us and by his grace gave us eternal encouragement and
good hope,

17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
기를 원하노라

encourage your hearts and strengthen you in every good deed
and wor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참된 사랑은 구원으로 안내합니다(13~15).

바울은 거짓 소문에 휩싸이지 말고 구원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사랑에 눈 뜨기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2:10). 이어지는 본 단락은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이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13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온전히 구원받아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계시하셨고, 그리스도인 모두를 참된 믿음에 이르도록 이끌고 계십니다(14절).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곧 진리의 사랑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통로입니다.

2.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내는 존재입니다(16~17).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은 비단 미래가 되어서야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작성한 이 편지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랑을 일컬어 하나님의 은혜이자,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영원한 위로라고 표현합니다(16절).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로부터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이 떠나가지 않기를 부탁하기도 합니다(15절). 은혜와 위로로서 데살로니가 성도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소망을 갖게 하시며, 그분의 미래에 동참하는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이 기쁨이 불의한 속임으로부터 돌이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마음을 열어 갑니다(17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이 땅이 창조된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으로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며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돌아보십시오.
2.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가 사랑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삶으로서 전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하루 공동체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십시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10 ¹⁰ 주님,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묵상일기 | 말씀에서 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 봅니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8

수요일

데살로니가후서 3:1~5

오늘의 찬송 528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말씀 속으로

- 1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Finally, brothers, pray for us that the message of the Lord may spread rapidly and be honored, just as it was with you.

- 2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And pray that we may be delivered from wicked and evil men, for not everyone has faith.

- 3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But the Lord is faithful, and he will strengthen and protect you from the evil one.

- 4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We have confidence in the Lord that you are doing and will continue to do the things we command.

5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May the Lord direct your hearts into God's love and Christ's
perseveranc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바울이 사역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1~3).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권면해 온 바울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1절) 데살로니가 땅에 복음을 전한 결과 교회가 탄생하였듯 그가 현재 머문 고린도 지역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일을 위해 부당하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도록 기도해 달라는 고백은 그의 현실을 짐작하게 합니다(2절). 그 와중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를 살뜰히 살피는 모습이 서로를 위한 기도 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십니다.”(3절) 사랑하는 일도, 서로를 향해 기도함도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하나님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하나님이 기도 안에서 연결되며, 모두와 함께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비춥니다.

2.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에게 마음을 보이십니다(4~5).

하나님 안에서 한몸 된 사실을 상기시킨 바울이 다시금 격려를 베풁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4절) 데살로니가 지역과 마찬가지로 편지를 작성하던 고린도에서조차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던 그를 때마다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게 한 건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렇듯 기도의 힘을 누구보다 몸소 경험했던 바울인지라 데살로니가 성도 역시 이 일에 동참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권면한 셈입니다. 그러나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어려운 까닭에 바울은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한편, 이 땅을 공회이 여기시는 하나님을 닮아 그들도 서로에게 인내하며 착한 삶을 살아가기를 전합니다(5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서로를 향한 희생 없이 가정과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몸담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며 간구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73:22~25,28 ²²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²³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²⁴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²⁵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²⁸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묵상일기 | 말씀에서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6~13

오늘의 찬송 338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말씀 속으로

- 6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we command you, brothers, to keep away from every brother who is idle and does not live according to the teaching you received from us.

- 7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For you yourselves know how you ought to follow our example. We were not idle when we were with you,

- 8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nor did we eat anyone's food without paying for it. On the contrary, we worked night and day, laboring and toiling so that we would not be a burden to any of you.

-
- 9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We did this, not because we do not have the right to such help, but in order to make ourselves a model for you to follow.

- 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For even when we were with you, we gave you this rule: "If a man will not work, he shall not eat."

- 11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We hear that some among you are idle. They are not busy; they are busybodies.

- 12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Such people we command and urge in the Lord Jesus Christ to settle down and earn the bread they eat.

- 13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And as for you, brothers, never tire of doing what is right.

3:6 떠나라

14절의 '사귀지 말라'에 해당하는 단어와 함께 사회적인 추방이나 출교의 의미를 가진다. 당시 배제나 출교는 사회적으로 큰 수치를 주었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바울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6~9).

바울이 기도하는 삶을 본받도록 권면했다면(3:1~5), 본 단락은 게으른 삶을 주의시킵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6절) 데살로니가 성도 중 몇몇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다는 이유로 삶을 영위하는 일을 기피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초대 교회 문화에 기대어 부유한 신자가 나누는 재정을 의지했던 걸로 추측되는데, 바울은 매우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며 그들로부터 과감하게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이토록 당당히 명령할 수 있었던 비결은 형제자매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틈틈이 땀 흘리며 수고했던 시간 때문입니다(7~8절). 사도로서 바울은 교회의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권리를 스스로 포기합니다(9절). 다른 이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 누리려는 대신 직접 일하며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을 바울 자신의 삶에 새긴 것입니다.

2. 바울이 사랑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기를 격려합니다(10~13).

본이 되는 바울의 삶이 차츰 눈에서 멀어지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상한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일컬어 ‘도무지’ 일할 생각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묘사하는가 하면, 사랑을 표현할 시간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 성가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11절). 바울은 그들을 향해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양식을 먹으며 다른 이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한편(12절), 가르침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주옥 같은 말을 건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13절) 게으른 무리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이 좌절하고 낙망하여 선행을 그르칠까 염려했던 까닭인데, 이 부탁에는 연약한 형제자매에게 시선을 거두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흘리며 창조하길 바라는 심정이 함께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다른 사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던 바울의 삶을 묵상하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의 삶으로부터 자유의 참된 의미를 함께 묵상해 봅시다.

2. 작은 일에 낙심하다가 정작 선을 행하는 큰일을 놓치게 된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안에 좌절하고 실망케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삶을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4:12~16 ¹²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¹³ 네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네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¹⁴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¹⁵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¹⁶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 버리신다.

묵상일기 | 말씀에서 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 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말씀 속으로

- 14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If anyone does not obey our instruction in this letter, take special note of him. Do not associate with him, in order that he may feel ashamed.

- 15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Yet do not regard him as an enemy, but warn him as a brother.

- 16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Now may the Lord of peace himself give you peace at all times and in every way. The Lord be with all of you.

- 17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I, Paul, write this greeting in my own hand, which is the distinguishing mark in all my letters. This is how I write.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ll.

3:17 표시

바울은 자필로 표시를
남김으로써 자신이 작
성한 편지임을 증명하
고자 한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 이어집니다(14~15).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어느새 마무리되며 마지막 부탁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그가 몸소 보이고 전한 가르침을 거스르는 자들로부터 거리두기를 호소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14절)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지 말며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라는 정체성으로부터 흔들리지 말기를 충고한 셈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따라 힘 있게 말하면서도 사랑으로 호소하듯이 타이릅니다. 배려심 깊은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을 대하는 태도에서조차 묻어납니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15절) 원수에게도 넉넉히 선을 베풀 때에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2.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기시키며 편지를 맺습니다(16~18).

바울의 권위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지도력은 내용뿐만 아니라 방식에 있어서도 두드러집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17절) 편지에 친필로 서명함으로써 혹시라도 일어날 분쟁을 대비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도로서의 권위가 자신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순간 기억하며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18절) 바울이 없었다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심겨지고 태동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이룬 행적에 초점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편지를 맺는 순간까지도 은혜를 상기시키며 바울 자신과 데살로니가 성도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높인 이유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울은 문제가 일어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평화를 빌며 그들 안에 일어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부탁이 원수를 형제처럼 대하라는 권면으로 확장되는 말씀을 읽으며 어떤 마음이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고 있는 세계를 잠잠히 묵상해 봅시다.
2.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은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후서를 통해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5:4~5 ⁴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⁵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므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묵상일기 | 말씀에서 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 봅니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11

토요일

잠언 30:10~17

오늘의 찬송 461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말씀 속으로

- 10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Do not slander a servant to his master, or he will curse you, and you will pay for it,

- 11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There are those who curse their fathers and do not bless their mothers;

- 12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those who are pure in their own eyes and yet are not cleansed of their filth;

- 13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those whose eyes are ever so haughty, whose glances are so disdainful;

-
- 14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those whose teeth are swords and whose jaws are set with knives to devour the poor from the earth, the needy from among mankind,

- 15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The leech has two daughters, "Give! Give!" they cry. There are three things that are never satisfied, four that never say, "Enough!":

- 16 곧 스올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the grave, the barren womb, land, which is never satisfied with water, and fire, which never says, "Enough!"

- 17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The eye that mocks a father, that scorns obedience to a mother, will be pecked out by the ravens of the valley, will be eaten by the vulture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10~14).

아굴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꾸밉니다. 먼저는 욱신의 부모에 불순종하는 자녀를 비난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부르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으로부터 돌이키기를 권면합니다(11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새겨진 질서를 올바르게 보지 못한 채 교만하게 구는가 하면(10절), 더럽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찬 마음을 보면서도 스스로를 깨끗하다 여기는 위선적인 태도를 보입니다(12절). 흥미롭게도 아굴은 심히 높은 눈을 겨냥하며 비판하는데(13절), 이런 눈을 가진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기는 물론이고 약해 보이는 이웃을 함부로 대하며 억압하는 데까지도 나아갑니다(14절). 그래서 아굴은 천지를 바라보면서도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유익만을 탐하는 악한 눈을 경고하며, 이 땅과 관계하시며 지금도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기를 거듭 충고합니다.

2. 교만과 탐욕으로부터 악이 생성됩니다(15~17).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교만한 눈’과 연결되었다면 이번에는 ‘탐욕’과 함께 조명됩니다. 아굴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욕망을 ‘스울’, ‘아이 배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죽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로서 묘사합니다(16절). 각각의 단어가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이미지를 내포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채워지지 못하는 어둠을 상징하는 만큼 인간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아굴의 교훈을 비롯한 잠언 말씀은 교만과 탐욕을 죄로서 밝히며 이로부터 발현되는 악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고발만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충고이기도 한데,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보다 사랑한 죄로 인하여 비참하고 불명예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17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아굴은 눈이 향하는 곳이 곧 마음이 닿는 곳이라 말하며 스스로 높이 들린 눈을 경계시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열린 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잠언은 인간 안의 교만과 탐욕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생명을 살리고 낳는 현실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요즈음 내 안에 갈망하는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로 아름답게 빛어지고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7:10~12 ¹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 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 ¹¹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¹²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묵상일기 | 말씀에서 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 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아들람 공동체로부터

가뭄 속의 단비

글 정미경 (성도)

북미에 거주하는 저는 현재 소망교회 온라인지구 20구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외출을 일체 금했습니다. 자연스레 대면 만남이 어려워 지자 신앙생활에도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만 해도 지역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저로서는 빈 들판을 걷는 듯한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때마침 2022년 1월, 소망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구를 창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시작한 온라인지구 신앙생활은 3월부터 시작된 아들람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보다 깊은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함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니 감사가 넘쳤고, 기쁨 또한 가득 누리게 되었습니다.

‘해외 구역’ 공동체의 탄생은 이곳 타국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저에게는 영적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단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양한 국가에 사는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영적 성장에 밑거름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삼오오 모인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에서 주기적으로 만나며 회로애락을 나누고 중보 기도하는 요즘이 정말이지 은혜롭습니다.**

온라인지구 공동체를 통하여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주님, 소망교회, 그리고 온라인지구 담당 목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 지구가 나날이 부흥되어 대면 모임이 어려운 많은 성도들에게 단비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은혜의 시간

글 황지영 (집사)

올해부터 온라인지구 6구역에 속하여 믿음의 교제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 온라인구역이 새롭게 편성된다는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성경 공부와 함께 지체들과의 교제를 하고 싶어 기도하던 저에게는 참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지구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 '소망ON'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여 예배드리고 아둘람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행복할 뿐입니다. 온라인구역 첫 모임은 구역 담당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 진행되었고, 이후로는 구역원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온라인 6구역은 **주일 저녁 온라인상으로 모여 한 주 동안 읽고 묵상했던 성경 말씀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코로나 이전의 순모임에서 누렸던 기쁨과 은혜를 다시 느낄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5)

이 말씀처럼 우리 믿음은 생각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목사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온라인구역이 환난 당한 자, 빛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이는 은혜의 아둘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6/12~18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시 85:9)

12 (주일)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13 (월)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14 (화)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15 (수)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16 (목)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17 (금)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18 (토)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유월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말씀 속으로

18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There are three things that are too amazing for me, four that I do not understand:

19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 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the way of an eagle in the sky, the way of a snake on a rock, the way of a ship on the high seas, and the way of a man with a maiden,

20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This is the way of an adulteress: She eats and wipes her mouth and says, "I've done nothing wrong."

21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Under three things the earth trembles, under four it cannot bear up:

22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a servant who becomes king, a fool who is full of food,

23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an unloved woman who is married, and a maidservant who displaces her mistres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하나님을 속일 자는 없습니다(18~20).

교만과 탐욕의 죄를 혼계했다면 본 단락은 은밀한 중에 죄를 범하는 악한 마음을 꼬집습니다. 이 마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늘을 난 독수리의 자취, 바위 위를 지나가는 뱀의 자취,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의 자취를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다고 착각하며 스스로의 죄에 떳떳하기조차 합니다. 한편으론 이러한 심정으로부터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어나는 음행 죄가 신랄하게 고발되기도 합니다. “간음한 여자의 자취도 그러하니, 먹고도 안 먹었다고 입을 찢듯이 ‘나는 아무런 악행도 한 일이 없다 한다.’”(20절) 남녀 사이의 간음을 경계시키는 듯한 이 구절은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비난합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는 새의 자취, 뱀의 흔적, 배의 물결조차 숨겨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억울할 때나 모든 일을 진실하게 살피시는 하나님께 신원을 의탁하며 하나님을 속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2. 때에 맞는 행동이 지혜롭습니다(21~23).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죄를 범하는 악한 본성을 주의시킨 데 이어 21~23절은 부정한 방식으로 일하는 자세가 주의됩니다. 아굴은 “세상을 뒤흔든 만한 일이 셋,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넷이 있으니”(21절) 하고 말문을 열어 이후에 소개되는 일들이 얼마나 일반적이지 않은지를 강조합니다. 그 일이란 종이 임금이 되고,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고, 꺼림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고, 여종이 안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입니다(22~23절). 언뜻 보기에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자신의 자리를 충분히 여기며 분수에 넘치는 언행을 보이는 당사자들의 태도는 더욱 놀랍기만 합니다. 아굴은 이런 자를 가르켜 ‘미련하다’ 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때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아굴은 은밀한 중에 죄를 짓는 동기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과 연결합니다.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합니까?
2. 아굴은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태도가 지혜롭다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와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53:1~6 ¹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²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³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⁵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흘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⁶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묵상일기 | 말씀에서 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 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말씀 속으로

- 1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
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
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The word of the LORD that came to Zephaniah son of Cushi,
the son of Gedaliah, the son of Amariah, the son of Hezekiah,
during the reign of Josiah son of Amon king of Judah:

-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I will sweep away everything from the face of the earth,”
declares the LORD.

- 3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
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I will sweep away both men and animals; I will sweep away
the birds of the air and the fish of the sea. The wicked will
have only heaps of rubble when I cut off man from the face of
the earth,” declares the LORD.

-
- 4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I will stretch out my hand against Judah and against all who live in Jerusalem. I will cut off from this place every remnant of Baal, the names of the pagan and the idolatrous priests -

- 5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those who bow down on the roofs to worship the starry host, those who bow down and swear by the LORD and who also swear by Molech,

- 6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those who turn back from following the LORD and neither seek the LORD nor inquire of him."

- 7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 하셨음이니라

Be silent before the Sovereign LORD, for the day of the LORD is near. The LORD has prepared a sacrifice; he has consecrated those he has invited.

11

스바나는 구시의 아들 곧 아프리카계 유대인으로 므낫세 통치 하에 출생한 겔로 짐작된다. 고조부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였다는 점에서 꽤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췄다고 보인다. 본격적인 활동 시기는 요시아 왕이 집권하고 종교개혁 운동이 진행될 즈음으로 추정된다(주전 622년 초).

- 8 여호와와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On the day of the LORD's sacrifice I will punish the princes and the king's sons and all those clad in foreign clothes.

- 9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On that day I will punish all who avoid stepping on the threshold, who fill the temple of their gods with violence and deceit,

- 10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 이 구역에서는 울음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On that day,’ declares the LORD, a cry will go up from the Fish Gate, wailing from the New Quarter, and a loud crash from the hills,

- 11 막테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올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Wail, you who live in the market district ; all your merchants will be wiped out, all who trade with silver will be ruined.

- 12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At that time I will search Jerusalem with lamps and punish those who are complacent, who are like wine left on its dregs, who think, "The LORD will do nothing, either good or bad."

- 13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Their wealth will be plundered, their houses demolished. They will build houses but not live in them; they will plant vineyards but not drink the wine."

- 14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보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The great day of the LORD is near - near and coming quickly. Listen! The cry on the day of the LORD will be bitter, the shouting of the warrior there.

- 15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That day will be a day of wrath, a day of distress and anguish, a day of trouble and ruin, a day of darkness and gloom, a day of clouds and blackness,

1:8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방백과 왕자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한편 스바냐는 이방 종교에 마음을 뺏긴 자들을 두고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고 표현한다.

1:9 문턱을 뛰어넘어서

당시 블레셋 신 다곤은 성전 문지방에 서 있었는데, 예배자들은 신을 향한 존경과 경외의 표시로 문턱을 뛰어넘곤 했다(삼상 5:5).

1:11 막데스

시창 구역으로도 번역되는 '막데스'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11절의 '가나안' 백성을 '장사하'는 '백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 16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a day of trumpet and battle cry against the fortified cities and against the corner towers,

- 17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I will bring distress on the people and they will walk like blind men, because they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Their blood will be poured out like dust and their entrails like filth,

- 18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Neither their silver nor their gold will be able to save them on the day of the LORD's wrath," In the fire of his jealousy the whole world will be consumed, for he will make a sudden end of all who live in the earth,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1~13).

스바냐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태어납니다. 당시 깊은 어둠 속에 있던 유다 땅에 구스인 부부가 길러 낸 아들 스바냐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칩니다. 요시야는 선조들과 달리 종교개혁을 실행하며 예루살렘의 영적 회복을 일으키고자 했지만 곳곳에는 첩폐되지 못한 신당들과 우상이 남아 있었고(4절), 여전히 미신을 숭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5절).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며 분노 하셨고(6절), 대외적으로는 큰 제국 앗시리아가 점점 멸망하고 바벨론이 세력을 키우는 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필요한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중 한 사람이 었던 스바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된 인간이 진멸의 첫 대상으로 지목된 데 이어 시작조차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라니, 가히 하나님의 진노가 어 떠했는지 상상하게 합니다(3~4절).

2.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이 심판을 예고합니다(14~18).

여호와와 진노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기마저도 직접 주관하십니다(7절).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백성들은 슬피 울부짖을 뿐이나 그럼에도 여호와와 주권에 대항하는 자들은 불행을 면치 못합니다(10~13절). 말씀을 들은 스바냐는 여호와와 큰 날을 향하여 ‘분노’, ‘환난’, ‘고통’, ‘어두운’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그 날에 있을 일들을 상상케 만듭니다(14~17절). 그러나 이 날의 동력이 다름 아닌 여호와와 질투하시는 사랑이라는 점에 소망이 있습니다(18절). 하나님은 진노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미래를 꿈꾸십니다. 이 끝없는 사랑을 확신한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날을 바라보며 예언을 이어 갑니다. 한편 ‘여호와와 큰 날’을 두고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한 사건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펼쳐질 우주적인 심판으로서 이해하는 입장도 따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므낫세 치하 어두웠던 유다 땅에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시대를 관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꿈을 꾸는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잠잠히 들여다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3~5 ³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 주신다. ⁴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셀라) ⁵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묵상일기 | 말씀에서 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 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말씀 속으로

1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Gather together, gather together, O shameful nation,

2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와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와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before the appointed time arrives and that day sweeps on like chaff, before the fierce anger of the LORD comes upon you, before the day of the LORD's wrath comes upon you,

3 여호와와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Seek the LORD, all you humble of the land, you who do what he commands. Seek righteousness, seek humility; perhaps you will be sheltered on the day of the LORD's anger.

4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Gaza will be abandoned and Ashkelon left in ruins. At midday Ashdod will be emptied and Ekron uprooted.

-
- 5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와 말썸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Woe to you who live by the sea, O Kerethite people; the word of the LORD is against you, O Canaan, land of the Philistines, "I will destroy you, and none will be left,"

- 6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 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The land by the sea, where the Kerethites dwell, will be a place for shepherds and sheep pens,

- 7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 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It will belong to the remnant of the house of Judah; there they will find pasture. In the evening they will lie down in the houses of Ashkelon. The LORD their God will care for them; he will restore their fortunes,

- 8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I have heard the insults of Moab and the taunts of the Ammonites, who insulted my people and made threats against their land,

- 9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찢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Therefore, as surely as I live, declares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Israel, surely Moab will become like Sodom, the Ammonites like Gomorrah - a place of weeds and salt pits, a wasteland forever. The remnant of my people will plunder them; the survivors of my nation will inherit their land."

- 10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와의 백성을 훼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This is what they will get in return for their pride, for insulting and mocking the people of the LORD Almighty.

- 11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The LORD will be awesome to them when he destroys all the gods of the land. The nations on every shore will worship him, every one in its own land.

- 12 구스 사람들과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You too, O Cushites, will be slain by my sword."

-
- 13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앗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He will stretch out his hand against the north and destroy Assyria, leaving Nineveh utterly desolate and dry as the desert.

- 14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떼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Flocks and herds will lie down there, creatures of every kind. The desert owl and the screech owl will roost on her columns. Their calls will echo through the windows, rubble will be in the doorways, the beams of cedar will be exposed.

- 15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었드릴 곳이 되었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This is the carefree city that lived in safety. She said to herself, "I am, and there is none besides me." What a ruin she has become, a lair for wild beasts! All who pass by her scoff and shake their fist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이 예고됩니다(1~7).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질 불같은 진노가 예고된 가운데 2장이 시작됩니다.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1절) 이어서 스바냐는 그들이 놓치고 살아온 자리를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르게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3절) 여호와와의 진노하시는 손길이 임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마음과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외친 것입니다. 4~15절은 유다와 이스라엘 외에 이방 나라에도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 블레셋이 지목되는데, 스바냐는 ‘가나안 땅’을 함께 언급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유다 백성에게로 돌아갈 미래를 암시합니다(5,7절). 비단 땅만이 아니라 이 기업 안에 살아갈 자녀들과 함께하시겠다는 사랑과 은혜의 선언이었습니다.

2. 심판은 죄를 드러냅니다(8~15).

다음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심판받을 국가로 등장합니다(8~11절).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였지만 형제를 비방하며 영토를 함부로 침범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친히 심판을 내리시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는 마음을 보이고자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스스로 살아 계심과 공의로움을 입증하시고, 모압과 암몬 자손을 비롯한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날을 준비하십니다. “이방의 모든 섬 사람이 저마다 제 고장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11절) 마지막으로 구스 곧 이집트와, 앗시리아 제국에게 임할 심판이 언급됩니다(12~15절).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앗시리아 제국은 힘과 능력을 축적하고 과시하며 연약한 생명을 약탈하고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들이 의지하고 숭배하던 힘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생명을 앗은 죄의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보시다.

1. 하나님은 열방의 구원을 비전으로서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꿈을 꾸며 맡겨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2. 하나님은 힘을 의지했던 자에게 더 크신 권세로 심판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묵상하며 나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영역은 없는지 생각합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34:1~3 ¹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² 성소를 바라보면 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³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묵상일기 | 말씀에서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말씀 속으로

- 1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Woe to the city of oppressors, rebellious and defiled!

- 2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She obeys no one, she accepts no correction, She does not trust in the LORD, she does not draw near to her God.

- 3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 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요

Her officials are roaring lions, her rulers are evening wolves, who leave nothing for the morning.

- 4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Her prophets are arrogant; they are treacherous men. Her priests profane the sanctuary and do violence to the law.

-
- 5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께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The LORD within her is righteous; he does no wrong. Morning by morning he dispenses his justice, and every new day he does not fail, yet the unrighteous know no shame.

- 6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자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I have cut off nations; their strongholds are demolished. I have left their streets deserted, with no one passing through. Their cities are destroyed; no one will be left - no one at all.

- 7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I said to the city, 'Surely you will fear me and accept correction!' Then her dwelling would not be cut off, nor all my punishments come upon her. But they were still eager to act corruptly in all they did.

- 8 나 여호와께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Therefore wait for me," declares the LORD, for the day I will stand up to testify. I have decided to assemble the nations, to gather the kingdoms and to pour out my wrath on them - all my fierce anger. The whole world will be consumed by the fire of my jealous anger."

3:7 부지런히
일찍이 일어나서

3:8 벌할
검탈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악한 현실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1~5).

열방을 향했던 시선이 유다에게로 옮겨지며 자녀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재차 강조됩니다. 스바냐는 그들이 여호와와 분노를 산 이유를 전하며 개인에게 비롯된 죄가 사회 전체의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2절) 명확하게도 그들의 죄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지도자인 ‘방백’과 ‘재판장’은 불의와 폭력을 일삼으며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고, 타락한 ‘선지자’와 ‘제사장’ 때문에 예배가 상실된 도시는 어둠에 잠기고 맙니다(3~4절). 그럼에도 하나님은 불의한 현실 ‘그 가운데’ 계시며 악에서 선을 일으키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5절). 그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만이 황폐해진 마음은 나음을 얻어 새로워지고 어두운 땅에는 빛이 스며들게 됩니다.

2. 심판은 하나님의 긍휼을 넘어서 수 없습니다(6~8).

이렇듯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부패한 현실로부터 끈질긴 소망을 일으키며 열방이 회복되는 비전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럼에도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여전했고 하나님 역시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5절) 급기야는 이방 나라를 도구 삼아 자녀들을 치시는 고통마저 감내하셔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알지 못하는 우둔한 백성들은 부끄러운 행위를 더할 뿐입니다(7절).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잠잠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8절) 반갑고 설레기만한 기다림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스러운 진노가 끝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뼈아픈 아픔 끝에 하나님은 은혜로 구속하실 나라를 계획하시며 긍휼이 넘치는 다스림 가운데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초대하십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스바냐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가 사라진 땅에 죄악이 가득한 현실을 전합니다. 나, 가정, 교회 가운데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귄이 이루어지며 꿈을 회복하는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심판을 행하시기 전, 하나님은 “기다려라” 선포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은혜요 생명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7:8~9, 13~14 ⁸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⁹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¹³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¹⁴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묵상일기 | 말씀에서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 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말씀 속으로

- 9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Then will I purify the lips of the peoples, that all of them may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and serve him shoulder to shoulder.

- 10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From beyond the rivers of Cush my worshipers, my scattered people, will bring me offerings.

- 11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On that day you will not be put to shame for all the wrongs you have done to me, because I will remove from this city those who rejoice in their pride. Never again will you be haughty on my holy hill.

-
- 12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But I will leave within you the meek and humble, who trust in the name of the LORD.

- 13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The remnant of Israel will do no wrong; they will speak no lies, nor will deceit be found in their mouths. They will eat and lie down and no one will make them afraid.”

- 14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Sing, O Daughter of Zion; shout aloud, O Israel! Be glad and rejoice with all your heart, O Daughter of Jerusalem!

- 15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The LORD has taken away your punishment, he has turned back your enemy. The LORD, the King of Israel, is with you; never again will you fear any harm,

- 16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On that day they will say to Jerusalem, "Do not fear, O Zion; do not let your hands hang limp.

- 17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he is mighty to save.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 18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The sorrows for the appointed feasts I will remove from you; they are a burden and a reproach to you.

- 19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At that time I will deal with all who oppressed you; I will rescue the lame and gather those who have been scattered. I will give them praise and honor in every land where they were put to shame.

20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At that time I will gather you; at that time I will bring you home. I will give you honor and praise among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when I restore your fortunes before your very eyes," says the LOR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심판을 통하여 만물이 하나 되는 비전이 제시됩니다(9~13).

3장은 하나님 안에서 열방이 하나 되는 비전을 그립니다. ‘내가 흠은 자의 딸’ 곧 하나님이 남겨 두신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환상이 스바냐서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기도 합니다(10,13절). 그날에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으로 제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흩어졌던 민족들을 모으시고 모두가 여호와와 이름 아래 연합되는 영광을 나타내 시고자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케 하시는 손길과 함께,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에서도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우선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연민이 눈길을 끄니다(9,12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속이자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2.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이 만물을 구원합니다(14~20).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14절) 심판을 주관하시고 또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은 경배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찬양과 더불어 스바냐서를 매듭지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 말미암아 마음껏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도 구원받을 백성이 누릴 기쁨에 주목하기보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열방은 모든 짐과 근심, 수치로부터 해방되고 여호와를 예배하게 됩니다(17~18절). 이것이 어둠이 남아 있던 땅에서 스바냐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했던 유다의 미래이자 민족의 큰 앞날이었습니다. 이 일을 말씀으로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열방의 구원을 성취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20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입술이 깨끗해지는 사건은 존재가 새롭게 거듭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예’와 ‘아멘’으로 응답한 대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2. 회복이 필요한 유다 땅을 품으며 스바냐는 도리어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확신했던 그의 믿음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6:8~13 ⁸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⁹ 주님께서 지으신 못 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¹⁰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¹¹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¹²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¹³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스올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묵상일기 | 말씀에서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말씀 속으로

24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Four things on earth are small, yet they are extremely wise:

25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Ants are creatures of little strength, yet they store up their food in the summer;

26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coney are creatures of little power, yet they make their home in the crags;

27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locusts have no king, yet they advance together in ranks;

28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a lizard can be caught with the hand, yet it is found in kings' palaces.

29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There are three things that are stately in their stride, four that move with stately bearing:

30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a lion, mighty among beasts, who retreats before nothing;

31 사냥개와 숫염소와 밋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a strutting rooster, a he-goat, and a king with his army around him,

32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If you have played the fool and exalted yourself, or if you have planned evil, clap your hand over your mouth!

33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투음이 남이니라

For as churning the milk produces butter, and as twisting the nose produces blood, so stirring up anger produces strif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배움에는 낮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24~28).

교만과 탐욕을 멀리하는 자세를 가르쳤다면(30:18-23), 24절부터는 본받아야 할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흥미롭게도 아굴은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지나가기 마련인 곤충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첫째로 개미의 근성이 주목되며 성실한 삶의 자세를 권면하는가 하면(25절),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처럼 영악해지기를 훈계합니다(26절). 질서를 엄격하게 따르는 메뚜기 떼로부터는 단결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발견합니다(27절). 그러나 단결이 아무리 잘 되어도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무의미한 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굴은 정해진 목표를 향하여 쉼 없이 나아가는 도마뱀처럼 난관 속에서도 재차 일어나기를 격려합니다(28절). 곤충의 세계가 보여 주는 지혜가 새삼 놀라우면서도,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출 때라야 얻게 되는 교훈이라는 점에서 아굴의 교훈은 겸손한 삶을 도전하기도 합니다.

2. 배움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29~33).

이번에는 위력을 갖춘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함부로 물려서지 않는 근엄한 사자가 등장하고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며 다스리는 사냥개와 숫염소가 차례로 언급됩니다(30~31절). 이렇듯 아굴은 개미와 메뚜기처럼 작은 존재가 살아가는 동시에 보기에든 근엄하고 위엄을 갖춘 존재가 공존하는 세상을 묘사하며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를 전합니다. 한편으론 인간의 현실로 범위를 확장하며 상대를 분별하고 때를 헤아릴 줄 아는 태도를 당부하기도 합니다(32절). 그렇지 못하고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다가는 순식간에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하는 세상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겸손히 살피는 자세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아굴은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과 같은 눈높이를 갖출 때라야 비로소 발견하는 세상을 묘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시고 열려 가시는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자세로 서 있기를 원하는지 묵상해 봅시다.
2. 아굴은 높은 자를 존경하는 태도와 함께 관계를 세워 가는 방법을 조명합니다. 때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는 지혜를 사모하며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51:6~10 ⁶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⁷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⁸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⁹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¹⁰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묵상일기 | 말씀에서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 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복수가 휩쓸고 남긴 허망함

: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By Emily Bronte (1847)

글 유지미 (부목사)

…… 집 옆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한 전나무 몇 그루가 지나치게 옆으로 기울어진 것이나, 태양으로부터 자비를 감당하듯이 모두 한 쪽으로 가지를 뺀고 늘어선 앙상한 가시나무를 보아도 등성이를 넘어 불어오는 폭풍이 얼마나 거센지 짐작할 수 있다. (민음사, 2005 / 김종길 역)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 1818~1848), 삼십 평생의 유일한 소설인 『폭풍의 언덕』은 영국 문호 서머셋 몸이 선정한 세계 10대 소설 중 하나이며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 멜빌의 『모비 딕』과 더불어 영문학 3대 비극으로 꼽힌다. 작가의 생애 중 인정받지 못한 이 작품은 오히려 세기가 바뀌어 각광받았고 수차례 영화화된 바 있다.

이 작품의 시작부는 위 인용구절처럼 폭풍의 영향을 받아 굽어진 나무등걸 모양만큼 굴곡진 인생을 주인공으로 한다. 그 주인공은 히스클리프. 거리의 고아였으나 경건한 신앙인 언쇼의 손길에 이끌려 양아들로 들어오게 되고, 이 과정에 역차별받은 원래 아들 힌들리가 아버지 사후 히스클리프를 극도로 학대하게 되면서 갈등의 씨앗이 빚어진다. 하지만 외롭고 서러운 그의 인생에 각별한 공감과 다정함으로 다가와 준 이가 있어 힘든 시절을 견디게 해 주는데, 그 집의 딸인 캐서린이었다. 그러나 캐서린이 이웃 명문가인 린튼가와 결혼하게 되면서 히스클리프의 거절감은 극에 달한다. 종적을 감췄다가 3년 만에 돌아온 그는 복수의 칼날로 자신을 학대한 힌들리가 속한 언쇼가와, 자신을 버리고 캐서린이 시집간 린튼가를 차츰차츰 무너뜨려 간다. 이 과정이 너무 비인간적이며 잔인하지만 원한에 사무친 그를 제어할 장치가 없다. 그사이 그는 점점 더 괴물이 되어 가고 양가의 저택인 워더링 하이츠^{Wuthering Heights}와 드레스크로스

그레인지^{Thruscross Grange}를 자신의 소유로 넣기에 이른다. 그리고 가장 큰 원한을 제공했던 힌들리의 아들 헤어튼을 수중에 두고 학대하는 것으로 복수는 계속된다. 하지만 헤어튼은 히스클리프를 자신의 아버지처럼 여기게 되는 아이러니에 이르고, 결국 린튼가의 마지막 후예이자 그토록 사랑했던 캐서린의 딸인 캐시와 헤어튼이 맺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는 종결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3:9)*

안타깝게도 히스클리프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철저히 갚았던 인물이다. 그 과정에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고통당했고 그의 횡포에 의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 이들이 많다. 그의 복수의 마지막은 자신을 괴롭혔던 힌들리의 아들을 교육과 교양에서 분리하고 철저히 망가뜨리는 것이었으나, 헤어튼은 오히려 복수의 화신 히스클리프의 죽음 앞에 진정한 애도를 보이는 인격체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오히려 까칠한 캐시의 애정의 대상이 된다. 비극적인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는 구도였지만 2세대에 이르러서 그 이전까지 거칠게 치단던 복수극은 재현되지 않았다. 히스클리프는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던 시나리오가 이들의 화해와 사랑 앞에 허무한 것임을 깨닫고 무력해진다. 그리고 애증의 대상이었던 연인 캐서린의 자취를 찾아 헤매다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다. 완벽한 복수를 꿈꿨지만 사실은 그 노력 자체가 더 큰 불행이었음을 이 작품은 보여 준다. 그는 악과 욕으로 무장하여 자신의 인생을 불태웠지만, 운명은 그에게 후세를 이어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사랑의 복을 허락한 듯하다.

캐서린과의 이루지 못할 사랑에 대한 좌절, 힌들리로부터의 학대로 원한을 증폭해서 평생 복수의 망령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를 향해, 일전에 유모 넬리의 입을 빌어 했던 대사야말로 그가 마음에 담아 두어야 했을 내용이 아닌가 싶다. 양 집안을 향한 복수극, 복수가 휩쓸고 남긴 허망함으로 그 삶을 소진하기 전에 비뚤어져 있는 인생을 향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솔직히 말하면, 너 꽤 잘 생겼어. 변장한 왕자라고 해도 믿겠다. 누가 아니?
너희 아버지는 중국 황제고, 너희 어머니는 인도 여왕이라,
한쪽의 주급만 갖고도 ‘폭풍의 언덕’과 ‘티티새’라는 농원을 둘 다 사버릴 수 있을지
알고 보면 너는 몸을 뱃사람에게 유괴당해 영국까지 끌려왔던 거야.
만약 내가 너와 같은 처지라면, 내가 원래 고귀한 혈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를 생각하면,
용기와 위엄이 생기고 일개 농사꾼 따위의 탄압은 쉽게 견디낼 테니까”*

(문학동네, 2011 / 김정아 역)

6/19~25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시 115:11)

19 (주일) _____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20 (월) _____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21 (화) _____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22 (수) _____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23 (목) _____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24 (금) _____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유월
—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5 (토) _____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19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말씀 속으로

- 1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The sayings of King Lemuel - an oracle his mother taught him:

- 2 내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태에서 난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라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라

"O my son, O son of my womb, O son of my vows,

- 3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do not spend your strength on women, your vigor on those who ruin kings,

- 4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It is not for kings, O Lemuel - not for kings to drink wine, not for rulers to crave beer,

-
- 5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급게 할까 두려우니라

lest they drink and forget what the law decrees, and deprive all
the oppressed of their rights,

- 6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Give beer to those who are perishing, wine to those who are
in anguish;

- 7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let them drink and forget their poverty and remember their
misery no more,

- 8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Speak up for those who cannot speak for themselves, for the
rights of all who are destitute,

- 9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
원할지니라

Speak up and judge fairly; defend the rights of the poor and
needy.”

31:1 잠언
경고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솔로몬의 어머니가 분별력을 잃지 않길 당부합니다(1~5).

다윗과 밋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은 오래지 않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고통을 겪으며 두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했고, 그들을 보신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생명이 솔로몬입니다. 그 왕 곧 ‘르무엘’이라는 솔로몬에게 어머니 밋세바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왕의 어머니였기에 가능했던 권면이라는 점에서 눈길이 가는 한편, “내가 무엇을 말하랴”를 반복하며 꼭 필요한 가르침만을 전하려는 의지를 밝힙니다(2절).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3절) 무절제한 성관계를 첫 번째로 금지시켰다면 4절은 음주를 멀리하기를 당부합니다. 음행과 음주가 솔로몬 한 개인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판단력을 빼앗을까 염려한 까닭입니다(5절). 이런 마음을 품은 어머니로부터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탄생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가 왕입니다(6~9).

술을 멀리하라는 밋세바의 충고는 바른 통솔력을 일깨우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한편으로 술이 있다면 극한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백성에게 주어 차라리 위로를 얻게 하되, 솔로몬은 깨어 있는 정신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길 격려합니다(6~7절). 자칫 왕이 향락과 쾌락을 좇는 일에 눈이 멀어 나라를 살피는 것이 뒷전이 된다면, 수많은 생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의 일을 통하여 밋세바 그녀가 가슴 깊이 깨닫고 배운 교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솔로몬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역올한 자, 궁핍한 자와 같은 연약한 백성들을 돌보는 공의로운 왕으로서 치리하기를 권고합니다(8~9절). 이것이 왕을 향한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왕의 어머니로서 꼭 필요한 가르침을 전하는 밋세바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모, 배우자로서 서로를 이롭게 하는 말을 지혜롭게 전하고 있습니까?
2. 밋세바의 교훈은 왕의 자리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을 주목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72:1~3 ¹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 주셔서, ²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³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 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묵상일기 | 말씀에서 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 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박국 1:1~11

오늘의 찬송 535 주 예수 대문 밖에

 말씀 속으로

1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The oracle that Habakkuk the prophet received.

2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 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How long, O LORD, must I call for help, but you do not listen?
Or cry out to you, "Violence!" but you do not save?

3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Why do you make me look at injustice? Why do you tolerate wrong? Destruction and violence are before me; there is strife, and conflict abounds.

4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Therefore the law is paralyzed, and justice never prevails. The wicked hem in the righteous, so that justice is perverted.

-
- 5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Look at the nations and watch - and be utterly amazed. For I am going to do something in your days that you would not believe, even if you were told,

- 6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I am raising up the Babylonians, that ruthless and impetuous people, who sweep across the whole earth to seize dwelling places not their own,

- 7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They are a feared and dreaded people; they are a law to themselves and promote their own honor,

- 8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쥐려 하는 독수리의 날음과 같으니라

Their horses are swifter than leopards, fiercer than wolves at dusk. Their cavalry gallops headlong; their horsemen come from afar. They fly like a vulture swooping to devour;

1:1 목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서에는 크게 두 가지 제목이 나타나는 데 '경고'로 시작되는 1장과 '기도'로 시작되는 3장이다. '경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일차적으로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이해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다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목시로 받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자'는 '환상을 통해 보다'는 의미이다.

1:6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가리키는 다른 명칭이다. 당시 바벨론은 주전 8~7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던 앗수르를 멸망시킨 후에 갈기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물리치며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했다.

- 9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they all come bent on violence. Their hordes advance like a desert wind and gather prisoners like sand.

- 10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흙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They deride kings and scoff at rulers. They laugh at all fortified cities; they build earthen ramps and capture them.

- 11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Then they sweep past like the wind and go on - guilty men, whose own strength is their go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박국은 현실을 바라보며 고뇌하는 선지자였습니다(1~4).

스바냐서와 달리 하박국은 별다른 저자 소개 없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문구로 시작됩니다(1절). 스바냐 때에 이어 하박국의 시대에도 악의 현실은 지속되었고 밖으로는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이 급속도로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6~8절). 점차로 확장되는 바벨론의 세력이 하박국의 마음을 어렵게 만든 건 사실이지만, 유다 백성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힘을 앞세워 약소국을 겁탈하고 황폐화시켰듯이 유다 내부적으로 ‘강포’, ‘죄악’, ‘패역’, ‘겁탈’, ‘변론’, ‘분쟁’이 잇따르며 무고한 생명이 억압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4절) 그 속에서 하박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게 전부였지만 하나님 앞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온몸으로 겪어 낸 그의 고통과 씨름의 의미를 가집니다(2~3절).

2.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5~11).

슬한 호소에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 보아라. 놀라고 질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5절) 보고 놀라고 다시 보아도 또 놀랄 일이란 하나님이 성급한 백성 바벨론을 일으키시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악의 현실 그 자체와도 같은 바벨론이 열방을 치는 일도 모자라 하나님의 백성마저 공격하는 일을 허용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9~11절). 악이 악을 낳는 참으로 납득되기 어려운 현실에 하나님을 절박히 찾은 하박국이었지만, 꺾기에 들린 음성이 그를 더욱 좌절케 만듭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은 그의 호소 안에는 반드시 일해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박국의 이름은 ‘포용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스바냐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아픈 현실을 품으며 기도했던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2. 어리석어 보이는 듯한 하박국의 호소에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절규한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신념과 다른 상황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0:7~9,11~12 ⁷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⁸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⁹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스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¹¹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¹²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묵상일기 | 말씀에서 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 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박국 1:12~2:4

오늘의 찬송 384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말씀 속으로

- 12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O LORD, are you not from everlasting? My God, my Holy One, we will not die. O LORD, you have appointed them to execute judgment; O Rock, you have ordained them to punish.

- 13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Your eyes are too pure to look on evil; you cannot tolerate wrong. Why then do you tolerate the treacherous? Why are you silent while the wicked swallow up those more righteous than themselves?

- 14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You have made men like fish in the sea, like sea creatures that have no ruler.

15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 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The wicked foe pulls all of them up with hooks, he catches them in his net, he gathers them up in his dragnet; and so he rejoices and is glad.

16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Therefore he sacrifices to his net and burns incense to his dragnet, for by his net he lives in luxury and enjoys the choicest food.

17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 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Is he to keep on emptying his net, destroying nations without mercy?

1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 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I will stand at my watch and station myself on the ramparts; I will look to see what he will say to me, and what answer I am to give to this complaint.

2:1 어떻게 대답하실
는지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

- 2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Then the LORD replied: "Write down the revelation and make it plain on tablets so that a herald may run with it.

- 3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For the revelation awaits an appointed time; it speaks of the end and will not prove false. Though it linger, wait for it; it will certainly come and will not delay.

- 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See, he is puffed up; his desires are not upright - but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하박국의 믿음 또한 자라납니다(12~17).

머지않아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한다는 말씀 앞에 하박국이 재차 항의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12절) 언뜻 불만처럼 들리는 호소에는 악에서 선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이 믿음을 따라 기도 에 귀 기울여 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외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 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13절) 당시 유다의 현실보다도 악했던 갈대아인들은 물고기를 낚아 올리며 기뻐하는 어부처럼 사람들을 포로 삼는 재미에 빠져 있었습니다(15~17절). 그래서 하박국은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한편으론 악의 성행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마음이 절규와도 같은 그의 호소에 공감을 넣기도 합니다.

2. 하나님은 죄악 된 현실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2:1~4).

진리를 갈구하며 탄식을 거듭하는 열정이 하박국을 서도록 이끕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1절)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초소였다는 점에서 민족의 바른 운명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느끼게 합니다. 고요한 성루에서 앞을 바라보는 파수꾼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심정으로부터 솔직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1절) 고집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하십니다. “너는 이 목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2절)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눈으로 보고 명백히 새겨 누구든지 듣고 전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해 온 신실한 의인에게에는 여호와와의 구원하시는 사랑이 기다립니다(3~4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박국은 유다의 악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더 악한 바벨론의 잘 됨을 나무라며 탄식합니다. 내게도 하박국과 비슷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며 하박국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2. 성루에 서서 여호와와의 응답을 들은 사건은 하박국의 심경 변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이 나로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시는 영역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5:10~14 ¹⁰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¹¹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¹²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¹³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¹⁴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묵상일기 | 말씀에서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 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말씀 속으로

- 5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죽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indeed, wine betrays him; he is arrogant and never at rest. Because he is as greedy as the grave and like death is never satisfied, he gathers to himself all the nations and takes captive all the peoples.

- 6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Will not all of them taunt him with ridicule and scorn, saying, ‘Woe to him who piles up stolen goods and makes himself wealthy by extortion!’ How long must this go on?

- 7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락을 당하지 않겠느냐

Will not your debtors suddenly arise? Will they not wake up and make you tremble? Then you will become their victim.

-
- 8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고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Because you have plundered many nations, the peoples who are left will plunder you. For you have shed man's blood; you have destroyed lands and cities and everyone in them.

- 9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Woe to him who builds his realm by unjust gain to set his nest on high, to escape the clutches of ruin!

- 10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You have plotted the ruin of many peoples, shaming your own house and forfeiting your life.

- 11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The stones of the wall will cry out, and the beams of the woodwork will echo it.

- 12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Woe to him who builds a city with bloodshed and establishes a town by crime!

- 13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Has not the LORD Almighty determined that the people's labor is only fuel for the fire, that the nations exhaust themselves for nothing?

- 14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For 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 15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Woe to him who gives drink to his neighbors, pouring it from the wineskin till they are drunk, so that he can gaze on their naked bodies,

- 16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You will be filled with shame instead of glory. Now it is your turn! Drink and be exposed ! The cup from the LORD's right hand is coming around to you, and disgrace will cover your glory.

-
- 17 이는 네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The violence you have done to Lebanon will overwhelm you, and your destruction of animals will terrify you. For you have shed man's blood; you have destroyed lands and cities and everyone in them.

- 18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Of what value is an idol, since a man has carved it? Or an image that teaches lies? For he who makes it trusts in his own creation; he makes idols that cannot speak.

- 19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Woe to him who says to wood, 'Come to life!' Or to lifeless stone, 'Wake up!' Can it give guidance? It is covered with gold and silver; there is no breath in it.

- 20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But the LORD is in his holy temple; let all the earth be silent before him."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악은 악으로 고스란히 돌아갑니다(5~11).

2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지며 5절부터는 바벨론 곧 악인의 실체가 고발됩니다. 먼저는 거짓되고 교만하여 욕심이 그치지 않는 특징이 손꼽히는데, 하박국은 이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해당한 자들을 전합니다(5~6절).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힘은 결국엔 더 큰 힘의 권세에 눌려 벌을 받기 마련입니다(7~8절). 두 번째로 묘사된 악인의 실체는 여러 소예언서가 다루듯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9절). ‘자기 집을 위하여’ 곧 자신과 가문의 생존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생각에 그들 나름은 선을 행했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분명하게 죄로서 규정하며 피해당한 자들의 편을 보호하십니다(9~10절).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 부당하게 살아가는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질 수 없습니다. “답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11절) 그러므로 악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되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돌이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2. 하나님의 약속이 하박국에게 희망이 됩니다(12~20).

악인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묘사됩니다. 9절에서는 가문을 위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언급 되었다면, 12절은 약소국을 무력으로 억누르고 지배하는 제국을 고발합니다. 제국의 무력 앞에 약한 민족은 움짱달짝하지 못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바벨론이 포로 국가에 저지른 성적 범죄를 암시한다고도 해석합니다(15~16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생기 없는 돌과 나무에 금과 은을 입히고 숭배하는 악인을 비난하시며 어리석은 것을 의지하는 갈망과, 그로 인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불에 태우시고야 마는 결말을 예고하십니다(13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은 만유 가운데 높임받으실 하나님께로 향하며, 온 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과 찬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14,20절). 이 비전을 성루에서 미리 본 하박국은 약속이 성취 될 날을 굳게 믿으며 민족의 선지자로 세워진 자답게 유대의 앞날을 위한 기도를 이어 갑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이 화가 난 하박국에게 악인의 실체를 드러내시며 악의 결말이 곧 악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악의 기준 또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봅시다.
2.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섰던 하박국의 심정을 상상하면서 악으로부터 소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를 함께 묵상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35:15~21 ¹⁵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¹⁶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¹⁷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 수 없으니, ¹⁸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¹⁹ 이스라엘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아론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²⁰ 레위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²¹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묵상일기 | 말씀에서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 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박국 3:1~19

오늘의 찬송 419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말씀 속으로

1 시기오돗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A prayer of Habakkuk the prophet. On shigionoth.

2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
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LORD, I have heard of your fame; I stand in awe of your deeds,
O LORD. Renew them in our day, in our time make them
known; in wrath remember mercy.3 하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God came from Teman, the Holy One from Mount Paran. Selah
His glory covered the heavens and his praise filled the earth.4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
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His splendor was like the sunrise; rays flashed from his hand,
where his power was hidden.

5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Plague went before him; pestilence followed his steps.

6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He stood, and shook the earth; he looked, and made the nations tremble. The ancient mountains crumbled and the age-old hills collapsed. His ways are eternal.

7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I saw the tents of Cushan in distress, the dwellings of Midian in anguish.

8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히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Were you angry with the rivers, O LORD? Was your wrath against the streams? Did you rage against the sea when you rode with your horses and your victorious chariots?

9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You uncovered your bow, you called for many arrows, Selah
You split the earth with rivers;

3:6 전율하며
흘어지며

3:9 화살을 바로 쏘셨
나이다
지파에게 맹세하셨나
이다

- 10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the mountains saw you and writhed, Torrents of water swept by; the deep roared and lifted its waves on high,

- 11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Sun and moon stood still in the heavens at the glint of your flying arrows, at the lightning of your flashing spear,

- 12 주께서 노를 발하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In wrath you strode through the earth and in anger you threshed the nations,

- 13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You came out to deliver your people, to save your anointed one, You crushed the leader of the land of wickedness, you stripped him from head to foot, Selah

- 14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홀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With his own spear you pierced his head when his warriors stormed out to scatter us, gloating as though about to devour the wretched who were in hiding,

15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You trampled the sea with your horses, churning the great waters,

16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I heard and my heart pounded, my lips quivered at the sound; decay crept into my bones, and my legs trembled. Yet I will wait patiently for the day of calamity to come on the nation invading us,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Though the fig tree does not bud and there are no grapes on the vines, though the olive crop fails and the fields produce no food, though there are no sheep in the pen and no cattle in the stalls,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19 주 여호와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he makes my feet like the feet of a deer, he enables me to go on the heights, For the director of music, On my stringed instrument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박국에게 찬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1~15).

하박국의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1장의 첫마디가 ‘경고’였던 점에 비해 ‘기도’로서 여는 3장이 분위기의 전환을 암시합니다(1절). 그동안은 악의 현실을 규탄하는 일에 힘썼다면 하나님과 씨름했던 하박국에게 노래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찬양은 더 이상 악인과 의인을 나누지 않고 악에서 선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의에 닿고 있습니다. 악인의 실체가 길게 묘사된 2장에 반해 3장에서는 하나님의 권세가 드높여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위엄이 어찌나 높은지 영원하고 무궁할 것만 같은 산도 하나님의 진노에 속절없이 무너지고(6절), 천지의 주재이신 여호와 앞에서 거대한 악인은 힘한 번 발휘하지 못한 채 쓰러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스스로 고통의 시간을 거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경외하게 되었듯이 세상에 내려질 진노 또한 멸망이 목적이 아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도 ‘궁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여호와와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합니다(2,13절).

2. 하박국의 믿음이 기도하는 자리로 초대합니다(16~19).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박국의 기도가 눈길을 끄니다(16절). 하나님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던 그가 어느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춤추게 된 순간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18절)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하박국의 마음 안에는 말씀이 이미 응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씨름하는 몸부림 없이 기쁨의 열매를 얻지 못했을 까닭에 유다 백성의 회복을 향한 애타는 심정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이렇듯 차마 부정하고 싶은 악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한 하박국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박국의 살아 있는 믿음은 오늘의 우리를 초대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서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 3장에 실린 하박국의 노래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인식하는 계기가 없는 불가능했습니다. 나에게도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를 보는 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 하박국은 매우 느린 곡조의 시기오-note에 맞춰 장엄하고도 두려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느린 곡조에 맞춰 노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까지 기다리고 겸손할 줄 아는 삶의 자세를 구합니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8:1~9 ¹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²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 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못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³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⁴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⁵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⁶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⁷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 치듯 큰소리로 환호하여라. ⁸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⁹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못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묵상일기 | 말씀에서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 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말씀 속으로

- 10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
나라

A wife of noble character who can find? She is worth far more
than rubies.

- 11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산업이 꺾절하지 아니
하겠으며

Her husband has full confidence in her and lacks nothing of
value.

- 12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
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She brings him good, not harm, all the days of her life.

- 13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She selects wool and flax and works with eager hands.

- 14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 오며

She is like the merchant ships, bringing her food from afar.

-
- 15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She gets up while it is still dark; she provides food for her family and portions for her servant girls,

- 16 밭을 살피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She considers a field and buys it; out of her earnings she plants a vineyard,

- 17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She sets about her work vigorously; her arms are strong for her tasks,

- 18 자기의 장사가 잘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She sees that her trading is profitable, and her lamp does not go out at night,

- 19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In her hand she holds the distaff and grasps the spindle with her fingers,

- 20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She opens her arms to the poor and extends her hands to the needy.

- 21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When it snows, she has no fear for her household; for all of them are clothed in scarlet,

- 22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She makes coverings for her bed; she is clothed in fine linen and purple,

- 23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Her husband is respected at the city gate, where he takes his seat among the elders of the land,

- 24 그는 베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팔기며

She makes linen garments and sells them, and supplies the merchants with sashes,

- 25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She is clothed with strength and dignity; she can laugh at the days to come,

26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She speaks with wisdom, and faithful instruction is on her tongue.

27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
나니

She watches over the affairs of her household and does not eat the bread of idleness.

28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Her children arise and call her blessed; her husband also, and he praises her:

29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
느니라

"Many women do noble things, but you surpass them all."

30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
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Charm is deceptive, and beauty is fleeting; but a woman who fears the LORD is to be praised.

31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
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Give her the reward she has earned, and let her works bring her praise at the city gat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임합니다(10~20).

1~9절은 밋세바가 솔로몬에게 왕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가르쳤다면, 10~31절은 현숙한 아내의 상이 소개됩니다. 잠언서가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30절). 그녀는 첫째, 하나님을 섬기듯 남편을 존경하며 그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11~12절). 이러한 태도는 비단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집안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아내의 사랑과 존경에 힘을 얻은 남편은 부지런히 노동하며 가족을 위해 즐거이 희생하며 사랑을 베풁니다(11절). 두 번째로 묘사된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노동하는 자로 그 기강이 얼마나 대단한지 역동적이고 힘 있는 표현이 따릅니다(13,16~19절). 그러면서도 그녀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함께하는 여종과 곤고한 이웃을 향해 손 내미는 배려심마저 보입니다(15,20절).

2. 하나님의 지혜는 더불어 살아가게 합니다(21~31).

사람들은 현숙한 여인을 보며 그녀의 집안을 인정하게 됩니다(21절). 여인의 손길이 닿은 곳이라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로부터 기쁨을 발견하는 까닭입니다. 지혜로운 아내의 지지와 사랑 덕에 남편 또한 인적이 많은 성문에서 인정을 얻으며 존경을 받습니다(23절).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고 바른 판단을 내리면서도 사람들을 한껏 격려하고 사랑하는 현숙한 여인의 언어는 자식들마저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26~29절). 어찌 보면 너무도 이상적이고 아름답게만 들려 지혜로운 여인의 존재에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잠언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여호와와 말씀을 입술에 두고 사는 자를 지혜롭다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30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봅시다.

1. 잠언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지혜를 밝히며 인간 스스로는 지혜롭지 못한 존재임을 상기킵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지혜는 홀로 풍요롭게 살기보다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풍성한 삶으로 안내합니다. 지혜가 다스리는 땅이 되어 분쟁과 갈등이 종식되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4:5~9 ⁵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⁶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⁷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돌려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⁸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⁹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묵상일기 | 말씀에서 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대구 블레어주택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29

이곳은 선교사인 블레어와 라이스가 살던 집으로 1910년경에 지어진 건물이다. 현재는 교육·역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블레어 선교사는 1914년부터 1941년까지 27년간 대구에서 활동하였다.

붉은 벽돌로 지은 2층 집이며, 남북방향으로 긴 형태이고 안의 건축 재료를 일부분 바꾼 것 이외에는 건물의 형태와 구조는 잘 남아 있다. 지붕 위엔 붉은 벽돌로 된 굴뚝이 있고 건물 안의 바닥은 나무로 된 마루 바닥이다. 1층에는 베란다·응접실·거실·침실·식당·부엌이 있고, 계단으로 연결된 2층에는 침실·욕실 등이 있다. 창문은 위아래로 열 수 있게 되었으며, 현관의 베란다 외부분에는 일광 욕실이 있다.

선교사 블레어주택은 당시 미국의 주택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건물이다. 이곳의 내부는 현재 시대별 교육 자료와 대구 3.1운동 관련 자료 등으로 꾸며져 있다.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민음의 흔적을 찾아-한국의 기독교 유적> 참고 -
- 선교사 블레어주택 안내관 참고 -

홍성천(홍군) | 예수쟁이고 겁쟁이고 가난뱅이고 복을 전하는 자유로운 장물뱅이 www.honggoon.net



6/26~7/2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 같은 사랑
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시 147:11)

26 (주일)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27 (월)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28 (화)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29 (수)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30 (목)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1 (금)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2 (토)

영혼 ☐ 지성 ☐ 신체 ☐ 관계 ☐

유월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야고보서 1:1~11

오늘의 찬송 452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말씀 속으로

- 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James, a servant of God and of the Lord Jesus Christ, To the twelve tribes scattered among the nations: Greetings.

-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because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develops perseverance.

- 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

-
-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If any of you lacks wisdom, he should ask God, who gives generously to all without finding fault, and it will be given to him,

- 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But when he asks, he must believe and not doubt, because he who doubts is like a wave of the sea, blown and tossed by the wind,

- 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That man should not think he will receive anything from the Lord;

- 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he is a double-minded man, unstable in all he does,

- 9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The brother in humble circumstances ought to take pride in his high position,

1:1 야고보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회심했으리라 짐작된다(고전 15:7).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혜롭게 이끈 지도자였다.

1:8 두 마음

야고보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신자를 비판한다.

- 10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But the one who is rich should take pride in his low position, because he will pass away like a wild flower.

- 11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For the sun rises with scorching heat and withers the plant; its blossom falls and its beauty is destroyed. In the same way, the rich man will fade away even while he goes about his busines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야고보가 환난 중에 기뻐하기를 독려합니다(1~4).

야고보가 편지를 작성할 당시, 초대 교회는 세상의 유흥과 시험에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회의감에 휩싸이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홀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작성한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열두 지파 공동체를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역이나 인종, 언어나 문화에 상관없이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들에게 편지를 쓸 만큼 꽤나 권위 있었지만 스스로를 ‘종’이라 일컬으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야고보입니다(1절). 고백이 이어집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2절) 시련은 때로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3절). 그런 까닭에 비록 어두운 현실이지만 지금, 이곳에서 영광스런 미래를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당부였습니다.

2.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복됩니다(5~11).

믿음을 따라 인내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야고보가 격려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5절)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믿음의 길을 홀로 헤쳐갈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충고입니다. 이 때에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유흥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지혜 없이 진리를 따라 살기 어려운 현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공급하시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5~6절). 반면에 스스로를 의지하며 인생의 자랑과 정욕을 따르는 자는 한순간에 꺾고 지는 꽃과도 같습니다(10,11절).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으며 요동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광에 오르는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권고합니다(8~9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은 미래에 있을 영광을 선취하는 감정으로 표현됩니다. 말씀을 따라 기쁨에 관하여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2. 야고보는 지혜 없이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주의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지혜가 성육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길 권면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6:1~3 ¹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²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³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묵상일기 | 말씀에서 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 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야고보서 1:12~18

오늘의 찬송 411 아 내 맘속에

 말씀 속으로

- 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Blessed is the man who perseveres under trial, because when he has stood the test, he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 that God has promised to those who love him.

- 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When tempted, no one should say, "God is tempting me." For God cannot be tempted by evil, nor does he tempt anyone;

- 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but each one is tempted when, by his own evil desire, he is dragged away and enticed.

- 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Then, after desire has conceived, it gives birth to sin; and sin, when it is full-grown, gives birth to death.

16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Don't be deceived, my dear brothers,

17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계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도 없으시니라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the heavenly lights, who does not change like
shifting shadows,

18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
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He chose to give us birth through the word of truth, that we
might be a kind of firstfruits of all he created.

1:18 우리로 한 첫 열매
가 되게 하시려고

신자들의 거듭남은 세
상을 새롭게 창조하시
려는 하나님의 구원 경
륜의 첫 단계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은혜로서 살아갑니다(12~15).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말이 소개되었습니다(1:1~11).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형제자매가 시험과 유혹을 견딜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전해집니다. 야고보는 먼저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선포하며 인내를 이루라는 4절 말씀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12절). 여기서의 복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받기로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만큼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에서의 고난을 견뎌 내라는 격려를 내포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의 시련이 과연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바르게 살기를 요청합니다(14~15절). 다시 말해 욕심에 미혹되고 죄를 낳으며 옛 자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요 현실이니, 자녀를 부르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권면입니다. 이 은혜에 힘입을 때만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이 자녀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16~18).

이렇듯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을 부정하면서도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고백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17절) 성도가 인내를 구비하는 일과는 비할 수 없이 하나님 또한 성실과 인내로서 자녀들과 함께하시며 공활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가 인내를 훈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그분의 형상대로 온전해지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 스스로 시작하셨으니 말씀으로 거듭난 자녀들은 말씀으로서 완성됩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여기저기 흩어진 주의 백성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여 살아갑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봅시다.

1.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을 반박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로서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점을 적어 봅시다.
2.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신 성령으로 의롭다 칭하시며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25:1~5 ¹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 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²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³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⁴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⁵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평화가 깃들기를!

묵상일기 | 말씀에서 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 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야고보서 1:19~27

오늘의 찬송 91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말씀 속으로

- 19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My dear brothers, take note of this: Everyone should be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and slow to become angry,

- 20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for man's anger does not bring about the righteous life that God desires,

- 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Therefore, get rid of all moral filth and the evil that is so prevalent and humbly accept the word planted in you, which can save you,

- 22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Do not merely listen to the word, and so deceive yourselves. Do what it says,

23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Anyone who listens to the word but does not do what it says is like a man who looks at his face in a mirror

24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and, after looking at himself, goes away and immediately forgets what he looks like.

25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But the man who looks intently into the perfect law that gives freedom, and continues to do this, not forgetting what he has heard, but doing it - he will be blessed in what he does.

26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If anyone considers himself religious and yet does not keep a tight rein on his tongue, he deceives himself and his religion is worthless.

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Religion that God our Father accepts as pure and faultless is this: to look after orphans and widows in their distress and to keep oneself from being polluted by the world.

1:25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야고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수단 이면서 행동의 지침이 된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말씀 없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19~25).

앞서 야고보는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으로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순복하여 사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본 단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강조됩니다. 먼저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려 주는데 영혼을 능히 구원해 주는 것과(21절),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서의 말씀이 조명됩니다(25절). 한마디로 말씀이 운행하시는 역사 없이 인간은 구원함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또한 전해집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노하기도 더디 하십시오.”(19절)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청종하는 자세를 격려한 셈인데 그렇지 않은 자는 쉽게 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마음속의 화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까닭에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기 마련입니다(20절). 이에 야고보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주의해서 돌아보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권유합니다(24~25절).

2. 삶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26~27).

말씀과 관계하지 않고는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말씀을 거부하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야고보는 그들을 묘사하며 말씀 앞에 서는 바른 자세를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26절) 앞에서는 듣지 않고 말하기에 성급한 행동을 주의시켰다면, 이번에는 스스로를 경건하다 생각하며 높이는 교만을 경고합니다. 이렇듯 듣지 않으려는 완강한 자세와 자신을 옹계 여기는 교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야고보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말씀을 듣는 대신 말하기에 성급한 자들이라고 꼬집으며, 그들의 믿음이 거짓이라고까지 비난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크고도 높은, 넓고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합니다.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자연스레 선행을 베풀며 은혜를 나누는데, 그런 자를 가리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 말합니다(27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으로 관계하시며 구원함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그만큼 삶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비춥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 또한 다른 이의 삶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2:8~11 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 보며 너의 조연자가 되어 주겠다. ⁹ 너희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 둘 수 있는 분별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¹⁰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¹¹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묵상일기 | 말씀에서 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 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말씀 속으로

- 1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My brothers, as believers in our glorious Lord Jesus Christ, don't show favoritism.

- 2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Suppose a man comes into your meeting wearing a gold ring and fine clothes, and a poor man in shabby clothes also comes in,

- 3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If you show special attention to the man wearing fine clothes and say, "Here's a good seat for you," but say to the poor man, "You stand there" or "Sit on the floor by my feet,"

4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have you not discriminated among yourselves and become judges with evil thoughts?

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Listen, my dear brothers: Has not God chosen those who are poor in the eyes of the world to be rich in faith and to inherit the kingdom he promised those who love him?

6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But you have insulted the poor. Is it not the rich who are exploiting you?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dragging you into court?

7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slandering the noble name of him to whom you belong?

- 8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If you really keep the royal law found in Scripture,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you are doing right.

- 9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But if you show favoritism, you sin and are convicted by the law as lawbreakers.

- 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For whoever keeps the whole law and yet stumbles at just one point is guilty of breaking all of it.

- 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For he who said, "Do not commit adultery," also said, "Do not murder." If you do not commit adultery but do commit murder, you have become a lawbreaker.

- 12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Speak and act as those who are going to be judged by the law that gives freedom,

13 공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because judgment without mercy will be shown to anyone
who has not been merciful,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2:8 최고의 법

야고보는 구약 전체의
율법이 사랑의 명령을
담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합니다(1~4).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과 이웃을 구제하는 삶이 연결된 흐름이 2장에서도 이어집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1절) 야고보는 단지 “이웃을 도우라!” 명령하지 않고, 경건한 삶의 시작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기시킵니다.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는 사랑을 베푸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암시한 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라면 보이는 것을 기준 삼아 서로를 판단하고 비방하며 살지 않기를 충고합니다(4절).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세상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지 못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악에서 구원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의 장을 열어 갑니다(5~13).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을 논한 데 이어(1:27), 2장에서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이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하고자 최고의 법인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합니다(8절). 심지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외면하면서 높은 자를 좇는 삶을 가정을 파탄 내는 간음죄와,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에 비하기도 합니다(11절).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언급되다가 이웃을 구제하는 삶이 다루어진 이유를 질문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죄인을 향하여 끊임 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니 그분의 은혜를 후히 입는 자들 또한 이웃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입니다. 이렇듯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웃에게 열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이끌리어 사랑의 장을 열어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2.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와 시기, 미움과 정죄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1:7~10 ⁷ 손수 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⁸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⁹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¹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묵상일기 | 말씀에서 와닿거나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쓰고,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적어 봅시다.

한줄묵상 | 말씀에서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건강한 신앙을 위한 체크리스트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시고, 삶의 모양과 습관을 바꾸시며, 사회적 관계까지도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지성과 감성을 계발하고 몸을 단련하는 데 부지런합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도록 매주 당신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십시오.

1. 영혼

- 주일,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
- 매일, 말씀과 큐티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
-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
- 매주, 성경공부와 구역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 때때로, 스스로 삼가는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

2. 지성 / 감성

- 관심 있는 책을 읽고 있습니까? ☐
- 꾸준히 강의를 듣고 있습니까? ☐
- 일기를 쓰고 있습니까? ☐
- 좋은 음악을 듣고 있습니까? ☐
- 가끔 공원이나 숲에서 산책을 합니까? ☐

3. 신체

-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습니까? ☐
-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
-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까? ☐
- 일정한 거리를 걷고 있습니까? ☐

4. 관계

- 칭찬을 자주 합니까? ☐
-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까? ☐
- 낯선 분들에게도 친절하게 말을 건넵니까? ☐
- 한 주에 한번은 멀리 떨어진 가족들에게 전화합니까? ☐

하나님,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자녀로 불러 주시고

사랑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때마다 그 사랑을 들려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시키시고

주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이 그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 2022. 5. 7.(토), 새벽기도회 기도문 중에서

죽음을 이기는 사랑 : <아픈 만큼 사랑한다>를 보고

글 김지혜 (목사)



“아픈 만큼 사랑하며,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메디컬 체크 업!(Medical check up!)” 필리핀 오지마다 故박누가 선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다큐멘터리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끝까지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의료 선교를 멈추지 않았던 박누가 선교사의 이야기이다. 이미 2012년과 2016년 KBS1 인간극장을 통해 소개된 바 있는 그의 사랑과 섬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영화는 방송에서 다 보여 주지 못한 장면과 그의 사후 이야기, 그리고 추상미 감독의 나레이션 등이 추가되었다.

빈부 격차가 극심한 필리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거나 아파도 의료처치를 받기 쉽지 않다. 더욱이 오염된 물과 더러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원주민들에게는 감기나 중기 같은 가벼운 질병조차 큰 병이나 죽음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필리핀에 누가선교병원을 세웠지만 그곳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오지로 직접 들어가는 이유이다. 큰돈을 내고 치료를 받았지만 엉터리라서 치료가 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만날 때면, 그는 당사자보다 더 분노하곤 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책장압과 위암, 그리고 다시 위암 재발로 연거푸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도 이곳 필리핀을 떠날 수 없다. 이들을 오래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보물 1호 ‘메디컬 버스’를 타고 더 열심히 오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메디컬 체크 업!”을 외친다.

그는 의료봉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의 인사 “God bless you!”를 전하지만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우물과 유치원을 만들고 교회를 세웠다. 새순누가교회는 박누가 선교사의 피와 땀이 새겨진 또 다른 사역지다. 건물만 덩그러니 있던 교회에 마지막 열정을 쏟은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모두가 입을 모아 고백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아요.” 눈물이 날 정도로 친절함 진정한 의사,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간 분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영화는 시종일관 비장하기보다 밝고 따뜻하다. “봉사도 즐기면서 해야 오래가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가는 맘으로 해야 오래가요.” 그가 필리핀 의료 봉사를 대하는 마음처럼 이 영화도 그렇다.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의료 봉사를 오가는 버스 안에서 구성된 노래를 부르는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영화의 매력이다. **선교가 관계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깨달음, 자신의 병마와 싸우기보다 타인의 생명을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해 온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진다.**

“아픈 만큼 사랑하며,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그의 기도 제목이 오늘날 물질만능주의와 폭력의 문화 속에서 생존을 위해 더 움켜쥐려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다.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는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다면, 사랑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사랑, 한 알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는 능력이다.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에서 보여 주는 박수가 선교사의 행복한 사랑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전해 준다.

-글쓴이 김지혜 목사는 문화선교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아남귀를 부를 때

글 김명식 (장로)

우리 사회에 사람들 사이에 호칭으로 인한 긴장감이 쓸데없이 크고 그 때문에 호칭 자체가 세월이 가면서 변화하는 것을 본다. 요즘엔 갖가지 신분을 나타내는 말에 '분' 자를 덧붙여 예컨대 아파트에선 그냥 주민이라 하면 될 것을 '입주자분'이라 하고, 마트 구내방송에서는 심지어 '손님분들'이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하는 호칭이 계급처럼 굳어져 그것을 잘못 붙이지 않으려고 신경을 쓴다. 미국교회 같은 데는 직분에 상관없이 서로의 이름을, 그것도 퍼스트 네임^{first name}으로 부르는 것이 좋아 보인다.

윗사람에 대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우리 문화에서는 직장에서 상대방의 직함을 빌어 무슨 국장님, 부장님 하며 성을 붙였다 뗐다 하는데 그런 호칭 자체가 사람 사이에 간격을 만든다. 남녀간에 결혼 전에는 서로 거리낌 없이 이름이나 별칭을 부르고 하다가 한집에 살고 아이를 낳게 되면 오히려 호칭이 애매해지고,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어색해지니 아예 그만두고 만다. 주례 선생님께서서는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라고 당부 하셨지만 그냥 '이심전심'에 미루며 산다.



호칭 자체가 사람 사이에 간격을 만든다.

남선교회 조찬 성경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바흐의 “마태수난곡” 전곡을 몇 회에 나누어 영상과 함께 감상하며 해설해 주신 적이 있다. 독일의 어느 유명 합창단의 연주를 녹화한 것인데 화면에 뜨는 가사를 보고 의문이 생겼다. 하나님을 향해 외치며 “Du bist…”로 평교간(平交間)의 대화체를 쓴 것이다. 고등학교 때 배운 독일어 지식으로는 뒷사람에게는 ‘Sie’라 하고 동사는 ‘sind’라야 한데 - 하나님보다 높임을 받을 분은 없는데 - 어찌된 건가.

식사하러 친교실에 내려와 독일에서 공부하신 목사님께 여쭙봤더니, **나와 항상 가까이 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니 엄마, 아빠에게처럼 ‘Du bist’라 하지 어찌 다르게 부르겠는가 하신다.** 알겠다고 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우리의 주기도문이 머리에 맴돌았다. 그리고 보니 찬송가책에 찍힌 영어 기도문도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이라 하고 Thou니 Thy니 하는 글자는 사라진 지 오래다.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인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경칭과 경어로 기도하는데 서양인들은 편안한 대명사와 동사로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보다 촌수가 멀다는 말인가 의구심이 일 수 있다. 아버지를 아주 일찍 여윈 사람과 오랫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으며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느끼는 친밀감이 다를 수 있듯이 각 사람이 사용하는 말에 담기는 뜻의 심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같은 말로써 같은 뜻을 나누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나 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사람의 언어생활 등 문화적, 환경적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학자들 간에 있을 법하다. **만일 우리의 언어 관습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그 앞에서 무조건 두렵고 떨리는 구약시대적 틀에 머물러 있다면 이는 마땅치 않다. 간절한 기도 훈련을 통해 Du의 자리로 하나님을 부르며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5월 8일 | 어버이 주일

글 최창실 (권사)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죄와 욕심 가득한 손에
아름다운 꽃 들려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위한 꽃꽂이 올려 드리게 하시니 은혜입니다.

기쁨의 50일 보내는 어버이 주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꽃송이처럼 하나 두울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부모님의 마음처럼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예배드리는 모든 소망의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5월 15일

글 김경은 (집사)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 100:4)

하루하루 제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주신 것에 늘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5월8일 | 어버이 주일



5월 15일

오소서, 성령님!

글 김난희 (목사)



사랑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해법입니다.

꽃이 진 자리마다 굵어진 햇빛으로 꼭꼭 채우며 성숙을 준비하는 초목이 참 기록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성장의 계절에 소위 만물의 영장은 분열의 혹독한 아픔을 생산하며 공동체를 퇴행으로 모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다투고 혐오와 적대감에 상처받는 공동체를 생각하며 스위스 출신의 정신의학자 융 C. G. Jung, 1875~1961의 '건강한 성격(인격)발달'에 관한 통찰을 상기합니다. 통찰의 일부인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요즘 열풍이지요.

융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 내면은 남극과 북극처럼 합쳐지기 어려운 여러 대극(對極)들로 분열되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의식↔무의식, 페르조나/사회적 인격↔그림자/억압된 인격, 내향성↔외향성, 감각↔직관 등등... 그러나 이 대극들은 전인(The whole person)을 추구하는 본성 때문에 자석이 다른 극에 들러붙듯 서로 통합(합일)되고자 합니다. 그 본성을 따라가는 개인은 내면의 대극을 통합한 성숙한 경지에 이르는데, 융은 이를 '개성화(individuation)'라고 명명했습니다. '개성화'가 진행된 개인은 통전적(통합적)인 세계관이 형성되어 자기(self)와 정반대적인 타자를 편안히 수용할 수 있는 반면, 개성화가 미진하여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머물면 대극적인 타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열을 넘어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려면 각 사람이 통전적 인격, 즉 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개성화가 미진한 이유는 사회적 편견, 기대와 요구, 관습 등의 압박에 떠밀려 대극의 한 쪽 극만을 추구하면서 반대 편 극을 억압시키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점을 발견하여 지금 여기서부터 개성화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대상의 어떤 언행이나 특성들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그 특성은 내 안에 억압된 나의 대극(융의 용어 '그림자')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므로 내 문제로 여겨 끌어안는다면 분열은 통합되고, 그 결과 타자를 관대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극으로 여겨지는 타자와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개인의 내면은 분열 상태로 머물고, 이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갈등으로 상주합니다. 꼴도 보기 싫은 '너'의 그 모습이 바로 내 안의 억압된 '나'라니요! 낄낄이지 않나요? 융의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만 보더라도, 달라도 너무 다른 배우자나 자녀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신앙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서로에게 받아들여지는 길은 불가능일까요? 심히 어렵지만 불가능은 아닙니다! 성경은 상극의 사람들과 평화를 만든 허다한 사례들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동족 유대인)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행 7:59~60)

빌립이 **사마리아 상**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행 8:5~6)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고넬료 일족)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베드로)**게 지시하시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행 10:28~29 중)

이 사례들이 보여 주듯 예수 제자들은 핍박하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도하며 용서합니다. 이 뿐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한 형제요, 한 식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언어와 지역과 빈부와 신분의 고하 등을 막론하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행 2:1~4)



그 비결은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에 있었습니다. 이른 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당시 육신의 예수님을 여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던 중, **자신들을 압도적으로 사로잡는 성령 충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은 원자탄 같은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제자들은 이방인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하나 됨을 이루었고, 그렇게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지요.

사랑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해법입니다. 분열을 통합하여 평화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6월에는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이 있지요. 때를 따라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영, 일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게 초청한다면, 공동체에도 사랑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당신이 오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길 간청하는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오롯이, 간절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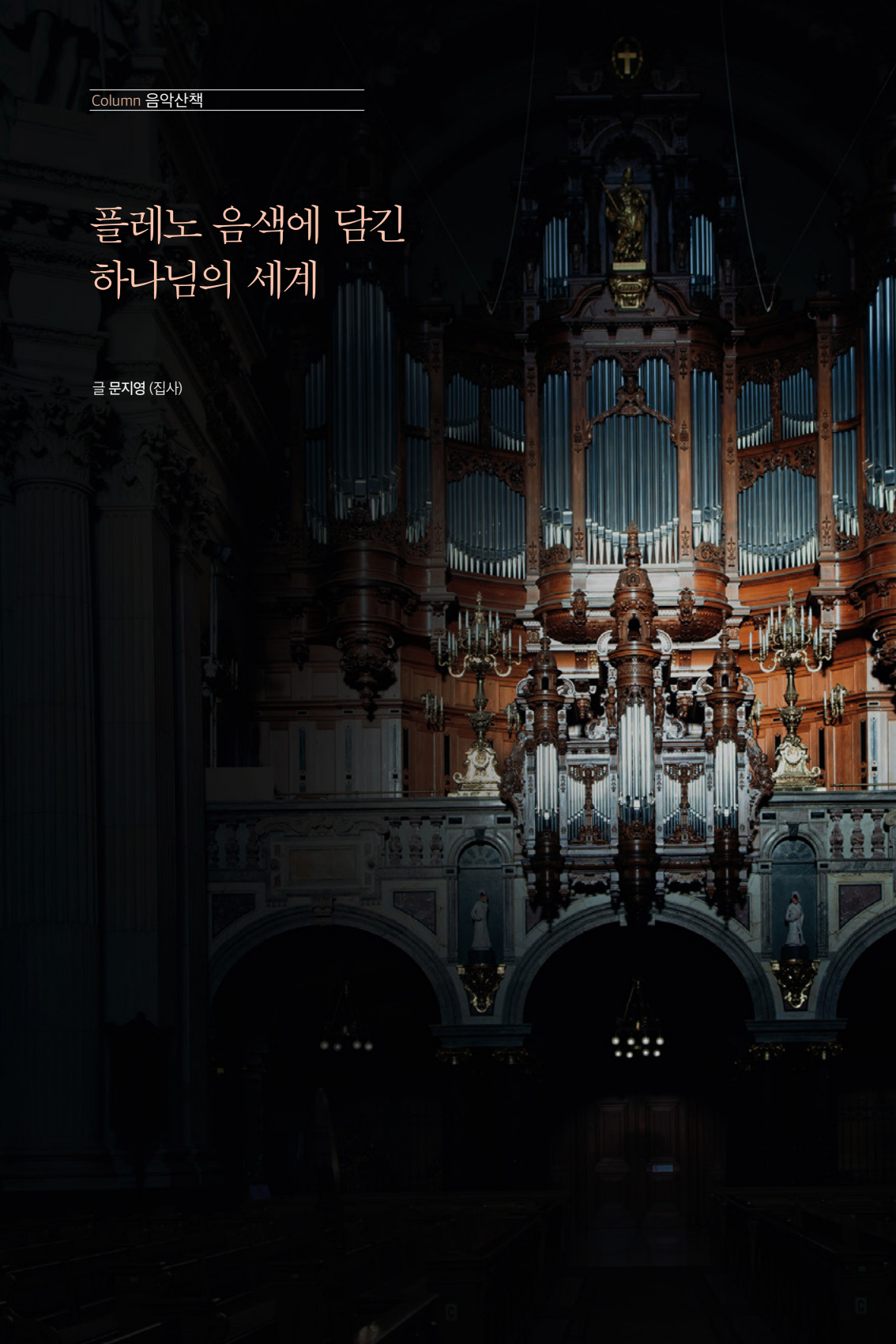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눅 11:13)

아멘! 오소서, 성령님! 지금 여기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소서!

플레노 음색에 담긴 하나님의 세계

글 문지영 (집사)





“성령강림”, 작자미상, 1776

올해 성령강림주일은 6월 첫째 주일이다. 이후 성령의 임재와 충만 가운데 신앙성숙을 도모하며 일상의 절기를 보내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성령충만’이라는 의미와 관련된 오르간 음색과 음악을 소개하려고 한다.

성령강림절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가 되는 날, 즉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내려온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행 2:1-13).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격려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받고 누리게 된 것이 성령강림절의 시작이다. 이 날을 기념하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역시 성령에 의한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교회는 새 출발을 시작한다.

초대 교회 교인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고 권면하며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말이 된 성령 충만의 의미는, 김정진 담임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에 잘 담겨 있다(2020.5.31). 설교에 의하면 ‘성령 충만’은 헬라어 ‘플레레스(플레로오)’와 ‘뽀트레미’로 나타나는데 성경 여러 곳에서 “기득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날 목사님께서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성령 충만의 의미를 쉽게 풀어 주셔서 마음 깊이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설교를 통하여 흥미로운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다. 바로 오르간 음색에 존재하는 “**꽉 찬, 가득 찬**”의 의미를 가진 **플레노**^{pleno}라는 음색이다.

오르간에는 파이프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각각의 이름을 가진 다양한 음색이 있다. 그중 오르간의 기본 음색들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플레노 음색은 화려하고, 공간이 꽉 찬 울림이 필요할 때 사용된다. 우리가 오르간 연주를 통해 자주 들을 수 있기도 한 이 음색은 단어의 발음과 의미에서 느껴지듯이 헬라어에서 파생되었다. 오르간 작곡가들은 간혹 자신의 악보에 ‘플레노로 연주하라는 지시를 적어 놓기도 한다. 그렇다면 성령강림절에 울리는 오르간 플레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예배에서 음악이 가지는 역할을 언급하고자 한다. 음악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아름답게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예배의 주제나 내용 또는 신학적인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예배를 깊고 풍성하게 해 준다. 특히 우리 귀를 통해 느끼는 청각적인 요소들은 신앙공동체가 하나님을 여러 방향으로 느끼고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오르간이 지닌 각각의 음색 역시 다양하고도 아름답게 조합한 울림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사랑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부드러운 음색을 채택하거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찬란하고도 반짝이는 음색을 사용하는 등 말이다. 따라서 **예배당을 꽉 채워 울리는 오르간 플레노의 소리는 음색에 담긴 이름처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더 깊이 느끼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플레노 음색은 성령강림절을 잘 표현하고 성령강림절에 잘 어울리는 음색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즈음에서 플레노의 음색으로 연주되는 오르간 곡을 소개하려고 한다. **바하의 오르간 작품 중 전주곡 내림마장조, BWV552번**(Präludium in Eb, BWV 552)이다. 이 곡에는 “*pro Organo pleno: 오르간 플레노를 위하여*”란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J.S. Bach Prelude in Eb-Major, BWV552, 자필악보>

이 작품은 바하의 건반연습곡 제3권에 첫 곡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건반연습곡 제3권은 ‘오르간 미사’라는 별칭을 가진다. 바하가 루터교 예배 순서에 따라 작품을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악보에 기입된 대로 오르간 플레노 음색을 사용하여 연주되는 이 곡은 화려하고도 장엄한 전주곡으로서, 예배의 시작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하게 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통로를 열어 준다. 의사이자 신학자, 음악학자, 오르가니스트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한때 이 곡이 ‘삼위일체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장엄하고도 우아한 부점을 가진 첫 번째 주제는 성부 하나님을, 올라가는 음형과 내려가는 음형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주제는 성자 하나님을, 16분음표의 빠른 진행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며 공간을 빈틈없이 채워 주는 세 번째 주제를 성령 하나님에 비유한 것이다. 플레노의 음색을 가지고 예배당을 꽉 채워 올리는 이 작품은 크고도 장엄한 코드들의 진행과 손의 빠른 움직임을 통해 성령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한다.



스캔해 주세요.

영상에 대한 설명

바하가 봉직했던 독일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이자 음악감독이었던 울리히 뵘Ulrich Böhm이 연주한 영상이다. 오르간은 2000년도에 바하 서거 250주년을 맞이하여 봉헌된 바로크식 뵘Wohl 오르간이다. 일명 “바하 오르간”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 북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에베소서 5:2)

2022 통일선교주간 기도 제목

치유

들로 나뉜 이 땅의 아픔이 조속히 치유되게 하소서

신앙의 자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특별한 이웃

우리의 이웃인 북한 동포와 탈북민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메마른 땅에 샘물이 솟아나고
동토의 땅이 푸른 초장으로 변화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미소비전예배를 품고 기도하며

글 이홍락 (장로)

20여 년 전 일입니다.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남북 교류의 일환으로 현대그룹이 북한 당국과 개발한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동해안에서 대형 크루즈를 타고 멀리 나가 좌회전을 두 번 해서 북쪽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방식으로 돌아오는 행로였습니다. 평양 등지에서 뽐뽐한 20, 30대 젊은 남녀 안내원들과 함께 지내면서 처음에는 경계와 긴장 속에 서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으나 시간이 지나자 일상적인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뭐예요?” “애야,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다친다.” 식의 농담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지내며 그들의 삶과 생각, 고민을 듣게 되었고 너무나 순박하고 순진하며 순수한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시골에서 수십 년 전 보아 온 농촌 아이들, 후배 청년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들에게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이 수령과 지도자 동지, 주체사상 등의 북한 이데올로기가 지금은 그들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지만 통일이 되어 효력을 잃게 되면 정신적 공백 상태, 비어 있는 영혼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혼에 우선 필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비전은 평양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고향 후배들과 같은 순수하고 빈 영혼들을 복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할 텐데, 평양에 근무하면 그 일에 일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위해 다소 추상적이었지만 십수 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통일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대통령이 되게 해 달라는 것보다도 어려워 보여서 ‘혹시 하나님, 통일이 늦어지면 제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추가하고, 언젠가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북방선교의 일에 관여하게 되면 이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 봐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소망교회가 북방선교부 주관으로 지난 3월부터 북한에서 온 20~30대 젊은 나이의 대학생 및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소위 윗동네분들(탈북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소비전예배”입니다. ‘미소’는 ‘미래 소망’의 줄임말로, 이 예배가 미래 소망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고백이기도 함

니다. 북방선교부를 섬기게 되면서 선교 방향을 고민하며 만나 본 교회 통일선교 관련자, 다른 대형교회 북한 선교 관계자, 정부 통일정책 담당자, 송실대 통일관련 파트 교수님들 및 관련 세미나, 북한 선교사 지망 외국인 훈련 단체 담당자, 탈북민 선교 단체 관계자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교회가 지향해야 할 통일 선교의 주된 방향의 하나는 북한에서 온 분들과 한국 교회 성도가 동질감을 회복하고 하나 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해 오던 사역인 이분들을 돌보고, 미래 통일 인재를 키우며, 탈북 사역자들과 관련된 교회들을 지원하는 일 역시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번 미소비전예배는 수년간 북방선교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돌봐 온 15명의 북한 출신 대학생들(졸업 후 병원 등에 취업한 직장인들도 있습니다)과 선교부원들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열어 달라고 요청해 온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기다려 온 데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기다려 온 이들에게는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직은 초기 시험 단계이지만 매 주일 7~10여명의 대학생·청년들이 북방선교부 회원들과 모여 뜨거운 기도와 예배, 나눔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잔치에 초대되어 아픔과 외로움을 치유받고 우리 성도님들과 일체감을 회복해 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북방선교부 미소예배팀이 담당하던 예배사회와 대표기도, 피아노 반주, 찬양 인도, 영상 담당 등도 이제는 모두 이들 대학생·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배를 그들에게 넘겨 주어 그들이 주체가 되는 예배가 되고, 북한이 고향인 성도들이 모이는 허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 가운데는 외식 사업을 하는 30대 청년이 있습니다. 소망교회 근처에 지점을 내어 교우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새 생명이 전파되는 귀한 통로로서 쓰이면 좋겠다는 희망 섞인 말도 하곤 합니다. 물론 신실한 그 청년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고향인 분들이 우리 교우들과 잘 어울리며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시혜적으로 조금 돌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실력을 기르고 자력으로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나기를 도와주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서 정상적인 일원이 되도록 교회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고향을 떠나 서울에 정착한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은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점은 그들의 고향이 이북이라는 점인데, 이것 역시 결정적인 차이는 되지 못합니다. 고향이 경북 어디요, 전남 어디요, 강원도요 하는 것과 평양이요, 함경도요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일반인들은 조금 특이한 존재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아직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방인과 소외된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명백히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교회는 그들을 우리 교인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대하며 특별할 것도, 특이할 것도 없는 성도로 대우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북방 선교를 위한 결론인 듯합니다.**

통일선교 주간(6.17~6.24)을 맞아 '5부 예배와 함께하는 미소비전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6월 셋째 주일 본당 5부 예배에서 남·북찬양팀, 미소비전예배팀 특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북한 출신 우리 대학생·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과 건강

글 강찬구 (집사)



약은 잘 사용되면 참으로 좋으나 잘못 쓰면 부작용이 있어 독이 되는 양면성을 가진다.

30여 년 동안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로서 인터넷 등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함부로 약을 선택해 복용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본다. 원래 약^藥이란 한자어는 풀초^草의 초두밑(++)에 풍류 약^藥 또는 즐거울 락^樂이 합해져서 생성된 글자이다. 그 옛날 신농 시대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의치효용^{醫治效用}, 다시 말해 약으로서의 치료 효과를 갖는 모든 식물, 광물, 동물에서 얻는 천연 물질을 사용했고, 놀라울 정도로 좋은 효과를 주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글자로 짐작된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지와 과학이 발달하고 합성약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더 연장되고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약은 잘 사용되면 참으로 좋으나 잘못 쓰면 부작용이 있어 독이 되는 양면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술 마신 다음 날, 머리가 아프다고 “타이레놀 주세요.” 해서 복용할 경우에 평소 간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치명적인 간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 복용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WHO에 의하면 건강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원래 우리 몸에는 DNA에서부터 시작하여 생물학적인 조직의 모든 단계에 자기진단, 자기회복, 재생의 메커니즘이 존재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즉 자연히, 저절로 낫게 하는 자연 치유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잠재된 치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활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일이 진정 병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알고 있다. 치유^{healing}란 온전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완전성과 균형을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치유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에너지는 신진대사를



통해 공급된다. 신진대사란 신체가 식품 속의 칼로리를 화학적인 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적절한 식이 요법이 필요하다.

적절한 식사란 충분한 칼로리를 공급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신진대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과도한 영양 섭취로 오히려 신진대사 효율이 떨어져 당뇨, 이상지질혈증, 통풍, 비만, 지방간, 다양한 소화기 질환 등 신진대사 장애가 다반사로 나타난다. 또한 인체의 방어 기능인 면역 체계가 약화되면 자연 발생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힘들고, 다양한 독소 역시 치유 반응을 감퇴시키는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독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신선한 과일과 야채류, 해조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 되도록 가공 식품류는 피하고 해독 과정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 섭취도 한 방법인데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Se), 베타 카로틴 등이 효과적이다.



결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식품과 환경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독소로부터 최대한 벗어나고,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하겠다. 여기에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 건강기능성 식품 등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준다면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장기와 뼈, 살과 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때에 인간은 아픔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진다. 이 믿음을 따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작게나마 노력한다면 더욱 건강한 6월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다.

5월 둘째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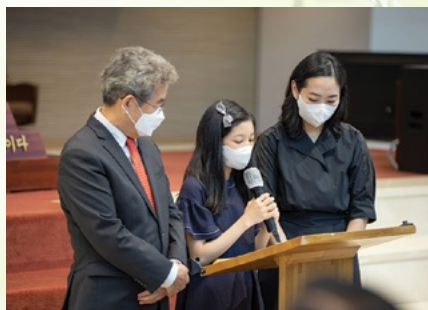
어린이 주일

5월 1일 어린이 주일, 소망교회는 어린이들의 웃음으로 가득했다. 어린이를 위한 공연과 이벤트로 행복한 추억을 선물했다. 유아부는 가족초청 예배를 드리며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릴 카네이션을 함께 만들었다. 초등학교 자녀들로 이뤄진 아동팀은 '아이컨택트'를 주제로 어린이 주일 예배와 행사에 참여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버블, 벌룬쇼 체험 공연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친구들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고, 공연 후에는 에어볼 추첨기에서 선물 수령권을 뽑아 써드니 선물 꾸러미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집에서 머물며 답답했던 자녀들은 친구들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렸고, 무엇보다 어린이들을 반기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본당에선 주일 1부부터 5부까지 매 예배마다 유아세례식이 거행됐다. 4월 23일 유아세례교육에 참석한 부모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서약했다. 김경진 담임목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44명의 아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소망의 뜰에서 양육받는 어린이들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더욱 사랑스럽기를 소망한다.



5월 둘째 주

온 가족 예배



아버이 주일과 온 가족 주일로 보낸 지난 5월 8일, 소망의 온 세대가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다.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겼다. 조부모와 부모, 자녀 3대가 함께 나와 성도들을 대표해 기도했다. 김정진 담임목사는 ‘사랑의 흔적을 새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애굽을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과 미간에 새겨진 표식처럼 주님의 못 박히신 손바닥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흔적이 있음을 강조하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연대를 경험하기를 바랐다. 2~4부에는 유아부 자녀들이 귀여운 축복송으로 부모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예배 후에는 대학, 청년부 부원들이 홍삼 음료와 카네이션을 준비하여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예배를 마친 가족들은 즉석 사진기 앞에서 이날을 기념하며 사진을 찍었다. 소망의 가족들은 믿음의 가정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건하게 자라가기를 바랐다. 저녁에는 배부른 가정 예배 순서지를 따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소망의 온 가족이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는 믿음을 따라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2022 | 06

발행인 김경진
편집위원 윤환, 유지미, 이경희, 김영규
편집주간 류현조
편집장 하수경
편집팀 홍성찬, 홍희선
디지털콘텐츠 조성실

디자인 워크워크
표지글씨 한재준
인쇄 워크워크(금호인쇄)

발행일 2022년 5월 28일(통권 126호)
발행처 소망교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55(구 신사동 624)
전화 02-512-9191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며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알립니다

소망 성도님들의 이야기(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 신앙간증)를 보내 주세요.

보내실 곳 : somangqtpd@naver.com

표지 그림과 글 | 이성표

6월엔 어디든 가리라
잔잔한 바람 푸른 나무들 사이
걷다가 주님을 보면 좋으련만!

소망예배안내

예배구분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매일(월~토) 오전 5:30	본당 / 본당 지하1층 / 분당기도처
주일 예배	주일 1부 오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주일 2부 오전 9: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가족예배실
	주일 3부 오전 11: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선교관 2층 / 가족예배실
	주일 4부 오후 1: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주일 5부 오후 3: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찬양 예배	주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영어 예배	주일 오후 1:30	선교관 지하 2층

방송시간안내

매체	구분	제목	요일	시간
라디오	서울 극동방송	생명은 빛으로	토요일	오전 9:00~9:30
	제주 극동방송	새벽강단	월~토	오전 4:30~5:00
	CBS 기독교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경남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대구 방송	소망의 소리	주일	오전 11:05~11:30
	CBS 기독교 부산 방송	라디오 교회	주일	오전 10:30~11:00
	CBS 기독교 청주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포항 방송	이 기쁜 소식을	화요일	오후 9:05~9:29
TV	CBS 기독교 방송	소망의 말씀	주일	오전 7:50~8:40 (본방)
			수요일	오전 1:00~1:40 (재방)
	CTS 기독교 TV	생명의 말씀	주일	오후 1:30~2:00 (본방)
			월요일	오전 6:30~7:00 (재방)
	CGN TV	소망교회 주일예배	월요일	오후 9:00~10:00 (본방)
	Good TV	말씀의 샘터	월요일	오후 10:40 (본방)

모바일 헌금 안내

쉽고 안전한 헌금 생활을 위하여 모바일 헌금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안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6月

6.25 나라사랑 기도회

24일(금) 오전 10:00

소망교회 본당

유아2부 여름성경학교

“복음의 생명으로 자라가요.”(요일 4:9)

25일(토) 오전 10:00~12:30

26일(주일) 현행대로 진행

소망교회 유아부실 외 3곳